

2023년 겨울호 vol.173

2023 이화인의 밤 / 성황리에 개최된 모교 후원 잔치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장 엘리시벳 현주 동창
제9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 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5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6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7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진선미관 설경(2022년)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흥보부장)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기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4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2023 이화성탄기도
- 03 2023 이화인의 밤
성황리에 개최된 성대하고 뜻깊은 모교 후원 잔치
- 08 2023 이화 가족 성탄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사건'을
이어가는 이화인 되길
- 10 제9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4년 만에 이화 교정에서 펼쳐진
알록달록 동심의 그림 세상
- 14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보스턴 지회
이화의 첫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
사랑과 섬김의 불길을 다시 마음에 심으며
- 18 '이을 연합회'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선후배 간 네트워크 통해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이화 공동체
- 22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 장 엘리사벳 현주 동창
꿈나무마을 아이들의 '마음의 엄마'가 되다
- 27 이화인 모임 탐방
'이화'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재부이화읍대어머니회
-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진리를 위해 바로 서서 공동체 섬길 수 있기를
- 32 총동창회 소식
일리노이 지회 인준 통과 외
- 35 선교부 소식
선교부 가을 수련회와 캄보디아 학교 방문
- 36 모교 소식
2023 국가고시 등에서 이화인 빛나는 성과 거둬
- 40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 44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 53 지회 소식 대전 지회 외
- 58 동창 근황 고(故) 문은선 동창 외
- 68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 68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71 연회비 납부자 명단



03



08

제9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오후 3시 / 장소 : 미화여대 교정, 대강당 / 후원 : (주)모나미, (주)크라운 애비뉴파크, (주)미야



10



14



18



22



27



2023 이화 성탄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거룩한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예배 드리는 이화 가족에게 은총 내려 주십시오.

137년 이화 동산에 내려 주신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이화 가족은 언제 어디서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유와 공명심, 사심과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지 않는 빛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화 동산에서 일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일상 가운데
지혜의 등불로, 평안의 숨결로, 화목의 화신으로 와 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동산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빛 마음이
절망과 고통 많은 세상에 오시는 희망동이 야기 예수님을 널 수 있는 빛 구유 되게 해주십시오.
높고 화려한 곳, 강하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한 곳에 스스로를 낮추어 오시는 주님,
저희로 그 거룩한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 알게 해주십시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이화 학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희망의 빛으로 와 주십시오.
높은 천장과 막힌 담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화 젊은이들의 고단한 마음에
위로의 생기로 와 주십시오.

세상 곳곳에 흘어져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십오 만 동창들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로 와 주십시오.
폭력과 억압, 차별 아래 울부짖는 세상 모든 여성과 기도로써 연대하게 해주십시오.
동창들의 손과 발에 사랑의 불씨로 와 주셔서,
이화 동창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의 돋는 손길과 발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화인은 그 사랑의 사건 모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동산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온 누리에 관용과 평화 넘치기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안선희(기독 88,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2023 이화인의 밤

성황리에 개최된 성대하고 뜻깊은 모교 후원 잔치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23 이화인의 밤’이 2023년 11월 27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화인의 밤’은 매년 25만 이화 동창들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동창 간 소통과 우애를 나누고 정성껏 마련한 모금을 모교에 전달하는 연중 가장 성대하고 뜻깊은 총동창회 행사이다. 올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호텔에서 1,0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따뜻한 만남, 2부 정겨운 만찬, 3부 아름다운 음악회, 4부 신나는 행운잔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은 동창들은 로비 한쪽에 마련된 포토월(오토스타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협업 작품으로 제작)에서 정답게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모교 총장, 장상·이배용·김선옥·김혜숙 전 총장, 윤순희·김순영·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김정선 학사부총장, 신경식 대외부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해 모교 후원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청춘 때처럼 설레는 이화인과의 만남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이화인의 밤은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로 문을 열었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기도에서 “이화의 오늘이 있기까지 늘 깨어 기도하시는 모교 총장님과 이사장님, 총동창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에게 정의와 공익을 행할 지혜와 통찰력

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이 인사말을 전하려 단상 위에 올랐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올해 이화인의 밤이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창 선후배들이 아낌없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분주한 가운데도 소중한 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가짐을 뜻한다”는 새뮤얼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구를 거론하며 “세월이 가면 얼굴에 주름이 지지만 마음의 열정은 시들 수 없다는 시인의 말처럼 청년 시절 이화에서 배우고 이화의 정신을 근간으로 오늘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화인의 만남은 그래서 언제나 희망적이고 청춘 때처럼 설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화 동창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그곳에 이화의 이름이 다시금 빛날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맺었다.

다음으로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는 시설아동에서 시작해 자립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엄마가 되어 주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는 봉사 활동의 주인공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질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행복한 순간

시상에 앞서 수상자 장 엘리자벳 현주(사회과교육 82) 동창의 활동상이 담긴 감동적인 동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어르신 영어 나눔 교실을 시작으로 2008년 자원봉사 단체 ‘어깨동무’를 설립하고 올해까지 15년 동안 (사)어깨동무 대표를 맡아온 장 엘리자벳 현주 동창은 22년간 진행해 온 어르신 대상 봉사 활동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카메라를 매개로 한 보육시설 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사업, 성숙한 시민 리더십 계발사업,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사업 등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봉사 활동과 후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찾아가 멘토가 되어 주는 선순환 활동을 시작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장 동창에게 전달하자, 함께 자리한 동창들은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장 엘리자벳 현주 동창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 모교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회의가 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힘을 주어 오늘에 이르게 되

장명수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왼쪽)과 김은미 총장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장 엘리자벳 현주 동창





2



4

1. 정미조 동창
2. 조형예대 중창단
3. 동창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4. 김영주 고문의 행운선물 추첨에 당첨된 동창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어 김은미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은미(사회 81) 총장은 “연구 중심 대학, 글로벌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라는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소개했다. “연구 중심 대학은 이화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후 변화, 지속가능 발전,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이자 과정이며, 글로벌 대학은 이화의 탄생과 명성이 글로벌했듯 이화의 학생들도 세계 경쟁력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졸업생들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멋진 리더가 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은 이화 150 주년을 준비하면서 진행 중인 협동관과 생활환경 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화의 역사 속에서 도전과 혁신을 배우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학이 되고자 연구개발, 창업, 평생교육 등으로 협력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깨동무 10여 년을 함께한 구성원의 80퍼센트는 이화인이기에 제가 그들을 대표해 수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겸손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에게 잘했다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용기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맺었다.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나아갈 것

다음은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김은미 총장에게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 기금 1억 5,000만 원, 총동창회 장학금 5,000만 원을 합쳐 총 2억 원의 모교

김은미 총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모교 홍보실에서 준비한 홍보 동영상이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왔다. 참석한 동창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려했듯 이화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로 쓰여지도록 놀라운 변화로 이화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2022년 영원한 이화인 조애진(커미부 66) 동창은 “1,000여 명의 동창들이 모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는 처음 참석하는데 이화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숫자이고 행사라고 생각하니 정말 자랑스럽다”며 “동창들이 앞으로도 좋은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목소리로 외친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만찬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총동창회 강승애(체육 95)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만찬 시작에 앞서 이화학당 장명수(커미부 64) 이사장의 진배 제의가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장명수 이사장은 “오늘 선물로 준비된 ‘이화과자’는 모교 안에 마련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수매니지먼트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것이니 동창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동하고 감사한다”며 “장애인도 일해야 하고 장애인도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이라고 외치는 이화의 창립 정신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명수 이사장이 모교 교가의 후렴구에 있는 ‘우리 이화’로 건배사를 제의하자 함께한 동창들이 준비된 잔을 높이 들고 한목소리로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를 외쳤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양쪽 스크린에서는 총동창회 임원 및 모교 이사장과 총장 등이 기증

한 행운 선물 당첨자의 티켓 번호가 반복해서 자막으로 안내되었고, 동창들은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정겨운 만찬을 즐겼다. 만찬을 마무리하며 현장 행운 선물 추첨 순서가 진행되었다. 스크린 영상을 통해 사전 행운선물에 당첨되지 못한 동창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마련된 행운선물 추첨은 행사 중간중간 3명의 부총장, 6명의 전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 고문들이 행운번호를 뽑아 그 자리에서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4부 ‘신나는 행운잔치’에서도 이어졌다.

북미주 지회에서 참석한 김영신(독문 88, 아이소이 미국지사 근무) 동창은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와보니 스케일이 크고 훌륭해서 놀랐다”며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삶에서 이화를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회포를 밝혔다.

아련한 추억을 선사한 정미조 동창의 무대

이어진 3부 아름다운 음악회 순서는 먼저 1970년대 최고의 디바이자 서양화가인 정미조(서양 72) 동창의 열정 가득한 무대로 꾸며졌다. 첫 곡은 ‘그립다 생각나면 조용히 눈을 감자~’로 시작하는 <그리운 생각>이었다. 정미조 동창은 자신의 컴백 스토리(《이화동창》172호 참조)를 소개하며, 37년 만의 컴백 앨범인 500장 한정음반 스페셜 에디션 LP와 1972~1979년 활동 당시의 히트곡을 담은 2005년판 골든앨범을 경품으로 내놓고 즉석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동창들에게 귀한 소장품을 선물했다.

이어 37년 만의 컴백 앨범 타이틀곡 <귀로>, 보사노바풍의 <7번 국도>, 활동 당시의 히트곡 <휘파람을 부세요>와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온시와 선후배 동창과의 즐거운 만남, 소통의 자리를 가진 동창들(왼쪽)
교가 제창으로 식을 마무리했다(오른쪽)

은 객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4부 신나는 행운잔치에
서는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
회장이 기증한 행운선물 추첨이 이어졌다. 추첨
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동창들은 홍분의 환호를 쏟
아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각자 기쁘고 감사한
소감을 전하며 기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
도 했다.

총동창회는 올해 이화인의 밤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첩, 달력, 아이소이 화장품 2종, 엠앤엠즈 블
록 2종, 폰타나 수프 2종, 싸일러 쿠폰 1매, 이수
매니지먼트 이화과자, 대외협력처 플러스펜 1세
트를 오티스타 콜라보 쇼핑백에 넣은 알찬 선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세 시간 반 동안 홍겨움과 감동 속에 진행된 이
화인의 밤 행사는 참석자 모두 사랑하는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교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모든 순
서의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
한 기념 선물 꾸러미와 행운선물을 안고 내년을
기약하며 자리를 떠났다.

라는 가사가 귀에 쟁쟁한 데뷔곡 〈개여울〉을 불러
지난날의 아련한 추억을 소환했다. 이어진 양송
〈Tombe La Neige(눈이 내리네)〉과 〈Les Feuilles
Mortes(고엽)〉은 객석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마지막 곡 〈Besame Mucho(베사메 무초)〉를 부를
때는 관객 모두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박자에 맞
춰 손을 흔들며 정미조 동창의 열창에 화답했다.

다음 순서는 12명으로 구성된 조형예대 중창단
이 가요 〈눈이 부시게〉와 〈서울 탱고〉을 부르며 화
려한 퍼포먼스와 안무로 무대를 장식했다. 특히
프로 남자 댄스선수와 함께 꾸민 멋진 탱고 공연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2023 이화 가족 성탄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사건’을 이어가는 이화인 되길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 이화 가족이 모여 성탄예배를 드렸다. 교목실과 총동창회 주관으로 매년 12월 첫 번째 목요일에 교직원, 동창, 학생 연합으로 드리는 행사다.

김희성 교수의 파이프 오르간 전주에 이어 김동근 교수가 선창으로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을 부르고, 이후에 교수, 직원, 학생, 동창 대표가 차례로 나와 성탄 기도를 드렸다. 장선복(약학과) 교수, 홍성기(건축팀) 직원, 김지수(사학과 21학번) 학생과 정보영(사회 85) 동창 선교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이화가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의 누가복음 2장 1절-14절 성경 봉독에 이어 음대 합창단의 〈오 거룩한 밤〉 찬양이 울려펴졌다. 합창은 양귀비 교수의 독창과 어우러져 장혜윤(작곡 08) 지휘자의 지휘로 이뤄졌으



안선희 교목실장의 설교와 축도(위),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1,000여 명의 동창과 학생, 교직원이 침식한 성탄예배

이화 오케스트라와 음대 합창단의 공연, 김동근 교수와 양귀비 교수의 찬양이 울려퍼진 가운데 '이화가 드리는 기도'와 함께 동창 선교사들의 모습이 화면으로 전해지며 큰 울림을 주었다

며, 합창은 최예지 교수가 지도하였다.

이후 설교 말씀 시간에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은 '사랑의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사랑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셔서 사랑의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이화인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사랑의 사건을 이어갈 것에 대해 설교하였다.

이어 장혜윤 지휘자의 지휘로 이화 오케스트라의 〈Sleigh Ride〉와 이화 동창 선교사 소식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제목은 '이화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었다. 영상을 보면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130여 명의 선교사를 위해 이화 가족이 후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헌금 기도 시간에는 조선영(영문 74)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였다. 이후 김은미 총장은 성탄 인사로 이화가 입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전하였다.

최예지 교수의 지휘로 음대 합창단이 성탄 축가로 〈노엘〉을 부르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를 합창한 뒤 안선희 교목실장의 축도로 성탄 예배를 마쳤다.

총동창회에서는 성탄 선물로 예쁘게 포장한 쿠키를 예배 참석자에게 선물하였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에 사랑의 사건을 이어가는 이화인들이 되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성혜옥(영문 70,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



4년 만에 이화 교정에서 펼쳐진 알록달록 동심의 그림 세상

10월은 가을이 한창 익어가고 여무는 달이다. 짧기에 더욱 찬란한 계절을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가족과 함께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2023년 10월 14일(토) 열린 ‘제9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그중 하나로,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이화 동창이나 교직원 자녀인 유치부(만 4~6세) 및 초등부 저학년(1~3학년) 어린이가 참가 대상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어린 자녀가 있는 동창들의 기대와 관심이 커서 참가자 모집 시작 후 48시간이 채 안 되어 선착순 마감되었고 유치부 96명, 초등부 112명이 등록했다. 행사 당일,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가 야속했지만 때 맞춰 내리는 비가 선명한 풍경과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듯 이번 대회가 어린이와 가족들의 바쁜 일상에 진한 느낌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강당 계단을 올랐다.

“동창 간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이미 총동창회 임원진이 천막 아래 본부석과 점심 꾸러미 중정석에서 분주한 손

길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짱!’일 것 같은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코너도 자리 잡고 있었다. 동창들은 각종 액세서리 판매대나 가족사진을 인쇄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대에 관심을 보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번 대회의 의의에 대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로 분주한 젊은 동창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모

오랜만에 열린 행사를 찾은 이화 가족들로 붐비는 교정



교와 동창회 소식을 알려, 가는 세대 동창과 오는 세대 동창이 연대할 수 있는 궁정적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접수 시작은 오전 10시부터지만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총동창회 임원진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첫 번째 참가자가 도착했다. 그 주인공은 허담희(초등부) 어린이와 문현아(국제사무 03) 동창 가족. 문 동창은 “아이에게 엄마가 다녔던 학교도 보여 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자랐어요. 저는 오랜만에 모교에 와 설레고, 아이는 학원을 빼먹어 더욱 신나고. 그러니 절로 일찍 출발하게 되더라고요”라며 활짝 웃었다.

이어 비웃, 장화, 우산을 분홍색으로 맞춘 이예빈(초등부) 어린이와 이지영(공연예대원 14) 동창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그림도 좋아하는 분홍, 주황, 노랑으로 색칠할 거예요.” 쑥스러운 듯하면서도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예빈 어린이가 펼칠 그림 세상이 자못 궁금해졌다.

눈에 띠는 가족은 또 있었다. 권태율·권서율(초등부) 남매가 모두 복고풍 교복에 팔각모를 쓴 것. 엄마 서현진(교공 08) 동창은 “옛날 교복은 가끔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 입히려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예요. 오늘은 친정엄마와 저까지 검정 옷으로 통일했고요”라며 ‘가족 콘셉트’를 설명한 뒤 “태율이는 세 번째 참가하는 건데 올해가 마지막이라 아쉬워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참가 대상을 넓혔으면 좋겠어요”라고 바람을 전했다.

도화지에도 ‘가을 소풍’, 건물 내에도 ‘가을 소풍’

배유빈(초등부) 어린이와 김한샘(영문 06) 동창 가족, 강주원(유치부) 어린이와 이영애(법학 09) 동창 가족은 그림 도구, 뜯자리 등을 나르면서 캠핑 때나 볼 법한 카트를 동원했다. 김 동창은 “앞서 이 대회에 참가했던 동창이 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알려 주더라고요. 동창들 사이에 이 대회가 소문났거든요”라고 말했다. 두 가족의 관계를 묻자 이 동창이 “기숙사 생활을 함께한 인연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이들 연령대가 비슷해 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궂은 날씨로 그림 그리는 장소가 이화 동산이 아닌 대강당과 ECC로



동심의 손으로 그려낸 ‘가을 소풍’



1. 시상식이 열린 대강당 2. 그림을 심사하고 있는 봉지희(가운데) 심사위원장과 김승주·이상영 심사위원



이명경 총동창회장

바뀌었다.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둋자리가 곳곳에 펼쳐져 그림 주제인 ‘가을 소풍’이 실내에 고스란히 옮겨진 듯했다. 어린이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거나 가족 나들이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 그리는 모양새가 제법 ‘꼬마 화가’ 티가 났다. 크레파스를 아무지게 쥔 손을 다정한 눈길로 쫓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주는 가족의 모습은 어린이 팬클럽이나 서포터스 일원으로 부르는 소리 없는 응원가나 마찬가지일 터.

박윤우(초등부) 어린이와 단현주(한음 07) 동창 가족, 육이안(초등부) 어린이와 강혜나(한음 06) 동창 가족, 김아인·김아론(초등부) 쌍둥이와 오미영(한음 07) 동창 가족은 둋자리 세 개를 이어 붙였다. 어린이들은 알록달록 나무와 그 사이에 자리한 가족을 그리고, 동창들은 간식을 쟁겨 주는 모습이다. 단 동창은 과 대표였다고. “오늘도 제가 연락해서 모인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 반갑네요. 아이들도 같은 경험을 하며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윤현기(과교 72) 동창은 남편, 딸 박나영(대학원 영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창, 손자 이승준(유치부) 어린이와 모교에 발걸음을 했다. 윤 동창은 “친구가 잘못 전해주는 바람에 불합격한 줄 알고 대성통곡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직접 확인하려 학교에 갔더니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떡하니 있지 않겠어요? 그때 또 평평 울었죠”라며 아찔했던 입학 후일담을 전한 뒤 “다들 바빠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오늘은 손자가 그림 그리는 모습까지 함께할 수 있어 좋네요”라고 미소 지었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어린이와 가족들은 혹시라도 젖을까 봐 조심조심하며 다 그린 그림을 본부석에 제출한 뒤 점심 꾸러미를 받고 자유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풍선 아트 코너. 피에로 분장을 한 아저씨가 여러 색깔 막대풍선을 ‘후후’ 분 뒤 이리저리 비틀고 연결해 포도, 강아지, 꽃 모양을 똑딱 만드는 게 놀랍고 신기

하다는 표정. 박연우(초등부) 어린이는 “아저씨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겨 큰 풍선을 받았어요”라며 롤리팝 모양 풍선을 들어 보였다. 엄마 강혜송(커미부 06) 동창은 “그림을 다 그린 아이들이 따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좋네요. 저는 스카프를 골라 보려고요”라며 액세서리 판매대로 향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각종 체험 코너와 판매대를 둘러보는 동안 심사위원장인 연성대 교수 봉지희(섬예 85) 동창과 한국여류조각회 회원이자 조형예대 동창회장 강승주(조소 87) 동창, 보교 신산업융합대 초빙교수 이상영(섬예 94) 동창이 어린이들의 그림을 심사했다. 오후 2시, 참가한 어린이 모두 이번 대회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고,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도 안 좋은데 귀한 걸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와 주신 덕분입니다. 이화 동산에서의 시간과 공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봉지희 심사위원장은 “심사 기준은 능력이 아닌 가능성과 장래성으로, 지금은 다소 서툴고 부족해도 앞으로 예술 활동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귀한 인성을 가지고 자라길 바랍니다. 순수한 창작성과 거침없이 자유분방한 모습이 보이는 작품들로 약간의 우열을 가렸을 뿐입니다. 많은 어린이가 맑고 밝게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해 상으로 나누기가 힘들었습니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어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 등 부문별로 유치부 5명, 초등부 5명 수상자 이름이 불렸다. 이전 대회와는 달리 한 명씩 시상해서인지 으쓱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외 어린이에게는 ‘행복 가득 상’을 수여해 모든 어린이가 상장과 상품을 받고 이번 대회를 축제와 놀이 한마당으로 즐기도록 했다. 간간이 내리는 빗속에 친구 또는 가족과의 추억을 도화지와 가슴속에 마음껏 풀어 내며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은 어느새 어깨에 내려앉은 햇살과 함께 귀가하며 내년에 또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그림 그리기 대회를 위해 (주)

모나미에서 크레파스와 문구 세트,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 과자 세트, (주)아이코닉스에서 비눗방울 놀이 세트를 후원했다.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장소 : 이화여대 교정, 대강당 / 후원 : (주)모나미, (주)크라운 해태제과, (주)아이코닉스 / 주최 : 이화여대 교정부



참가한 어린이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 보스턴 지회

이화의 첫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 사랑과 섬김의 불길을 다시 마음에 심으며

모임이 있을 때마다 30명 정도의 동창이 모이는 보스턴 지회에서 2023년도 북미주 지회연합회(이하 북지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높은 산꼭대기를 오르는 느낌과 비슷했다. 그러나 2023년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행사를 맡기로 결정한 2021년도부터 보스턴 지회에서는 한 계단씩 기초를 쌓아가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이번 총회의 슬로건을 'Back to the Beginning'으로 정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 여성들에게 교육, 의료,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 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이화학당을 세운 수많은 선교사들과 미국 친구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자. 둘째는 이화의 첫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 동창들에게는 희미해진 그 사랑과 섬김의 불길을 우리 가슴에 심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었다. 2021년부터 3년간 시간이 흐르면

서 점차 각 분야에 필요한 팀이 구성되었고, 총회를 향한 우리의 준비도 차곡차곡 쌓여 갔다.

행사를 맡았을 때는 팬데믹 기간 중이라 총회에 80명 정도 모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등록을 시작 하니 참석 인원이 약 18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호텔 방이 모자라고 행사장이 좁아져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것은 즐거운 비명이었다. 총회 날짜가 되어 호텔에 이삿짐을 옮기듯이 행사를 위한 짐을 갖다 놓고 나자 과연 우리가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두려움과 떨림과 설렘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드디어 10월 26일(목) 총회 날이 왔고, 보스턴의 10월 말이 이처럼 단풍이 아름답고 맑고 화창하게 펼쳐진 것은 많은 동창의 기도의 응답 때문이라 생각했다. 보스턴 호텔에 도착하는 동창들을 만나며 따스한 위로를 받았고 우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손잡고 얼싸안고 미소를 나누는 동안 긴장감보다는 따스한 정이, 그간의 어려운 시간을 다 녹여 주는 듯했다.

모교의 발전 계획에 깊은 감명 받아

첫날인 10월 26일(목)에는 총동창회에서 지난 1년간 수고한 북미연 지회장들에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지회장들은 총동창회와 북미연이 어떻게 소통하고 후원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 후 늦은 밤까지 39명의 이사가 모여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안건 2개를 통과시켰으며, 북미연의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 조직, 웹사이트 운영, 감사에 대한 안건을 심도 있게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이어 10월 27일(금)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다. 낮 동안 진행된 일일 여행에 참가한 동창들은 첫날은 보스턴의 대학 교육의 요람 하버드대학과 MIT공과대학, 예술의 요람인 Boston Museum of Fine Arts를 둘러보았다. 둘째 날에는 미국 건국의 문학과 철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향한 시민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콩코드 여행을 다녀왔다. 호텔에 남은 동창들은 네 종류의 클래스에서 미술, 요가, 음악과 인종 문제까지 곁들여 다양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김은미 총장과 이명경 총동창회장
2. 이화국제재단의 Swenson 이사장에게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은미 총장
3. 김지영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왼쪽)이 다음 개최지 북가주 지회 이해연 회장에게 지회기를 넘겨 주었다

10월 27일(금) 저녁에는 총장님과의 만찬, 28일(토) 저녁에는 대만찬이 열렸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의 첫 시작 스토리와 함께 과거와 현재의 이화여대, 그리고 미래 발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도입한 첨단교육시스템, 혁신적 학교 건물 개발 계획, 그리고 대외 협력처의 보고는 이화여대 동창들의 자부심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더욱 높여 주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동창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는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 주었고, 모교

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한층 깊어지게 하였다. 이화의 영원한 친구이며 후원단체인 이화국제재단의 Swenson 이사장은 김은미 총장에게 미화 55만 1,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무국장은 내년 회계연도가 끝날 때는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이화학당의 네 번째 당장인 프라이 선생님의 인생과 헌신적인 섬김, 사랑에 대한 이길자(의학 66) 동창의 프레젠테이션, 하버드 법대 석지영 교수의 대학 입학에 있어서의 인종 평등에 대한 확신에 찬 강의도 매우 인상 깊었다.

연주와 공연도 알차게 준비했다. 보스턴에서 활약하는 안은주(관현 08) 동창과 권현지(관현 05) 동창의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 그리고 최수진 피



오랜만에 모인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화인으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되새겼다

아니스트와 함께한 트리오 연주가 만찬에 참석한 동창들의 마음을 풍성한 음악 선율로 적셔 주었고, 육혜진(피아노 08) 동창의 피아노 연주는 따스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성악가 최신자(종음 86) 동창의 솔로 그리고 북지연 이화합창단의 노래 <You'll Never Walk Alone>이 만찬장에 울려퍼지며 깊은 감동을 주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섬김의 이화 정신 꽃피워

28일(토) 아침에는 북지연 총회가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각 지회에서

1년간의 활동을 동영상과 슬라이드로 발표하였다. 다른 지회의 활동을 보며 격려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첫날 이사회에서 나온 안건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했다. 한편 이화국제재단의 김정진(의학 72) 부이사장은 우리의 장학금이 이화국제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지, 또 동창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발표했다.

북지연 총회에는 해마다 만찬의 꽃인 텔런트쇼가 펼쳐진다. 올해는 다섯 개 지회가 참가했다. 토론토, 시애틀, 뉴욕, 남가주, 보스턴 지회 동창들

탤런트쇼에 참가한 남가주, 뉴욕, 보스턴, 토론토, 시애틀 지회(위부터 시계 방향)



이 바쁜 중에도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 와서 참석자들과 함께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뉴욕 지회의 남후남(약학 62) 동창이 정년퇴직 이후에 배운 선비춤을 선보인 것과 보스턴 지회의 김홍혜(가정 64) 동창이 평생 제작한 실크염색 작품을 보스턴의 젊은 20~30대 동창들이 패션쇼로 발표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두 동창 모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자신을 계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금요일과 토요일 만찬 2부 사회를 맡은 한나리(체육 92) 동창은 끝없는 위트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진행의 묘미를 보여 주어 참석한 모두를 웃음과 미소 그리고 즐거운 비명까지 지르게 한 장본인이었다. 10시까지 진행되어야 할 행사가 11시가 넘도록 끝날 줄 몰랐지만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박수 치고 하나 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

마지막 날 10월 29일(일)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은미 총장은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기술교육도입, 이화 West캠퍼스 건립계획, 학생들의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비전과 2023년 발전계획을 넘치는 열정과 확신으로 전해 주었다. 특히 여성의 섬세함이 첨단기술에 필요함을 역설하며, 여성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 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주일예배가 열렸다. 김윤자(간호 67, 몽골 선교사) 동창은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자신의 삶



북지연 합창단의 공연(위)과 보스턴 일일 관광에 나선 동창들(아래)

을 나누어 주며,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역설하였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은혜요, 빛진 삶인 것을 깨닫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떡을 나누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우리 남은 삶에서 가장 큰 의미라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며, 서로 간에 감사와 화해의 물결이 넘치게 몰려와서 껴안고 손

에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리고 내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Back to the Beginning을 간직한 우리 이화여대 동창들의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씨앗이 내년 북가주 총회에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삶에서 어떤 향기로 피어날지 조용히 상상해 보았다. 보스턴 총회를 주최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끝까지 인내 속에서 많은 동창이 함께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고, 행사 중에도 여러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모든 것 위에 감사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해 준 보스턴 지회와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들의 덕분이었다. 이화여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며 이화여대를 통해서 큰 사랑의 일을 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랑의 중심임을 새롭게 깨달으며 이 글을 마친다.

글·김지영(교육 82,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선후배 간 네트워크 통해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이화 공동체



총동창회는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이올 연합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과 김은미 모교 총장, 임진(작곡 72) 이올 연합회 회장,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이정화(독문 74)·신난식(성악 73)·최경희(화학 80)·박상금(행정 87) 이올 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180여 명의 '이올 연합회' 회원이 참석했다. '이올 연합회(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약칭 이올)'는 1991년부터 각 과에서 졸업 30주년 대표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과, 2022년부터 50주년 대표로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1957년 졸업생부터 1993년 졸업생까지 1,433명의 '이올' 인들이 모여 만든 총동창회 산하단체로서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며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진취적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화의 공동체

이날 행사는 임진 '이올 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및 김은미 모교 총장의 축사, 회계·사업보고, 장기자랑·동아리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식전 뷔페 만찬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운데

오유경(정의 93, 전 KBS 아나운서) 동창의 사회로 1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임진 '이올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화인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2021년 10월 결성된 ‘이올 연합회’의 2주년 축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지난 2022년이 다양한 특강과 함께했다면, 2023년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더욱 돋독해졌다”면서, “연합회의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통해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시작하며 아프리카 부족의 공동체 일화 ‘우분트’를 소개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우분트의 뜻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 공동체로서 든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도 한다”고 격려사를 했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우분트’라고 화답했다.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은미 모교 총장은 “이화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화에 대한 자긍심을 늘 간직해 주길 부탁한다”고 하며 “올해의 이화인들로부터 시작해 모든 이화인으로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이화인의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임진 회장이 ‘이올 연합회’의 임원진

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으로 수고한 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진 회장이 각 10주년(2013년), 20주년(2003년)을 맞는 기 대표에게 축하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이올’ 임원진과 함께 창립 2주년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입 ‘이올’ 회원들이 테이블마다 나눈 따끈한 떡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겼다.

권미경(교공 87) 회계는 재무현황을 보고하며 영원한 이화인 회원 증가와 바자회 수익금 등으로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이 2023년부터 결성되어 활약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였다. ‘주성희의 지혜교실’(주성희, 의직 74)은 청국장, 간장, 된장 등 전통음식을 배우며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있고, ‘노마드 여행’(김곡미, 생미 87) 동아리는 지난 6월 ‘최장금 집밥’(최혜정, 한음 90) 동아리와 함께 경기도 연천 향토문화재 17호인 황족 이근의 고택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고했으며, ‘아르모니아’ 합창단은 내년에 유럽 공연 계획이 있다고 알렸다. 이 밖에 ‘오렌지 낭독극단’(양선희, 교육 87)과 ‘찰리앤주디의 생활영어’(김주현, 사복 90)의 활동 상황 및 앞으로 진행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대면 강연회 개최, 연합 전시와 답사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1부 마지막 순서로 2023 새내기 ‘이올’인의 축하

축하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는 임원진



김내리 동창과 정자영 동창의 축하 공연(왼쪽부터)



공연이 이어졌다. 바이올린 김내리(관현 93) 동창이 이지희(피아노 93) 동창의 피아노 반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연주하였고, 소프라노 정자영(성악 93) 동창이 살바토레 카르델로의 <무정한 마음>과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판타지아> 두 곡을 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합창, 민요춤, 댄스, 연극 등 각 기 활동 큰 박수 받아

2부는 안근희(체육 93) 동창이 공동사회를 맡아, 그동안 동아리와 각 기별로 활동한 결실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정자(기독 66) 동창의 시조 낭송으로 2부의 문을 열었다. 이정자 동창은 「이화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쓴 글, “오늘은 이화의 날 드맑은 하늘이여… 빛으로 나아가리라 사랑 실어 더 멀리”를 직접 낭송하여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대학보』2010년 6월 1일자 계재)

신난식 동창의 지휘와 전혜수(피아노 73) 동창의



임진 '이율연합회' 회장

이정자 동창의 시조 낭송

반주로 한국 가곡 <별>과 멕시코 민요 <차파테카스> 두 곡을 들려준 영원한 이화인 중창단은 한복 당의를 착용하고 식이 끝날 때까지 단아하고도 꽃꽃한 자세로 자리를 지켜 후배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국 민요춤을 선보인 2016년 올해의 이화인 기수는 민요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녹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꽃 숲>과 <옹해야>를 선보였다. 같은 기 이미영(무용 86, 국민대 교수) 동창이 만든 시니어 컨텐츠를 바탕으로 준비한 특색 있는 공연으로, 한국인의 흥과 역동적인 힘을 민요 춤사위를 통해 전달해 참석자들은 ‘옹해야’를 다함께 부르며 하나 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주성희의 지혜교실', 2018년 올해의 이화인의 라인 댄스, 2016년 올해의 이화인의 한국 민요춤, 영원한 이화인 중창단, 연합 댄스팀의 줌바 댄스, '오렌지 낭독극단'의 공연, 2023년 올해의 이화인의 공연(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동창회와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한 선물과 각종 경품

미디어아트와 콜라보한 율동을 선보인 연합 댄스팀도 눈길을 끌었다. 작가인 이돈아(교공 91) 동창이 특별히 제작한 화려한 색채의 영상에 맞춰 줌바댄스를 시작하자, ‘동창의 날 행사’ 몸풀기 체조의 뉴 버전을 만난 듯 참석자들도 함께 율동에 참여했고, 신나는 퍼포먼스에 이끌려 모교 재학생들도 창문 너머로 함께 따라 하는 모습이 즐거움을 더했다. 이 밖에도 ‘주성희의 지혜교실’ 동아리에서 ‘Musical’ 노래를, 2018년 올해의 이화인 기수는 라인댄스 ‘라스트 월츠’를, 2023년 올해의 이화인 기수는 뮤지컬 『맘마미아』 중 <댄싱퀸>을 준비해서 공연을 펼쳤다.

2부 발표회의 마지막 순서는 ‘오렌지 낭독극단’ 동아리의 발표, <이대 나온 여자>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랐다. 일반적인 연극과 달리 무대 세트나 동작 없이 앉은 자리에서 9명의 동창이 목소리와 표정만으로 모든 감정을 전달하였다. 지난 3월, 연극과는 거리가 멀었던 왕초보들이 모여 시작했다는데,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극에 몰입하게 했다. (‘오렌지 낭독극단’은 고령기에 의미 있는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 사례로서 지난 8월 미래포럼 주최의 ‘좋은 어른 아카데미’에 초청되어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임진 회장은 동아리 발표와 경연이 끝나고 동아리 활동 장려금을 전달하는 한편, 경연 참가자 전원에게 우정상과 의상상 등 푸짐한 경품을 나누며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활동의 결실을 공유하고 격려했던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다 같이 교가를 부르고 난 뒤, 총동창회와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한 선물 꾸러미와 함께 앞으로 ‘이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행사장을 나섰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각 기별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들이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
자립준비청년들의 대모 장 엘리사벳 현주 동창

꿈나무마을 아이들의 '마음의 엄마'가 되다



서울의 '외딴섬' 꿈나무마을에서 만난 아이들

서울 은평구에는 '꿈나무마을'이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양육하는 서울시 산하 보육시설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는 장 엘리사벳 현주(사회과 교육 82) 동창은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장 동창의 나눔의 실천에는 긴 시간 그녀와 뜻을 함께한 '어깨동무' 멤버와 많은 자원봉사자가 소중한 동반자로 힘을 보태고 있다.

꿈나무마을 아이들과의 인연은 2008년에 시작됐다. 이미 2001년부터 살레시오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마자렐로 학원의 어르신들 대상 영어나눔교실에서 교육 자원봉사를 해오던 장 동창은, 2008년 이화 선배인 최성애(영문 79, 상담심리 박사) 동창 부부의 제안으로 꿈나무마을 안에 있던 도티기념병원에서 다문화 환자들을 위한 통역 봉사를 시작했다. “도티병원은 병원 설립자인 소 알로이시오 신부가 1980년대에 꿈나무마을에 병원 건설을 기획할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가였던 도티(Doty) 씨가 10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시작된 병원이에요. 다문화 가족이나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

서 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도티병원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 봉사를 하게 됐어요.”

통역 봉사를 하면서 그녀는 꿈나무마을에 사는 아이들과 만나게 된다. “통역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시설이 있었어요. 무려 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였기에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어깨동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어깨동무'는 꿈나무마을 아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장 동창과 몇몇 지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자원봉사 단체이다. 장 동창을 포함해 총 11명(김민정, 김지연, 모경옥, 배주연, 윤랑, 이경혜, 이상영, 이정화, 장영은, 장현숙)의 순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지부로 등록되어 밀도 있는 나눔 사업을 해오고 있다.

틀을 벗어난 '새로운 기발함'으로 아이들과 만나다

처음 몇 년 동안 장 동창과 '어깨동무'는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성교육 파티', '애완견 파티', '펀, 펀, 펀, 서머캠프(Fun, Fun, Fun, Summer Camp)', '노름마치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꿈나무마을 아이들과 함께했다. 아이들과 함께 몇 년을 보내면서 그녀는 보육원이라는 대규모 양육 공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활 여건과 아이들 마음에 자리한 여리고 깊은 상처를 생생히 느끼게 됐다. "아이들은 '외딴섬'이었어요. 출생의 아픔을 가진 이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말 그대로 DNA에 깊숙이 새겨진 상처였어요. 집단공간에 살면서 한 번도 '따뜻한 집밥'을 먹어 보지 못한 아이들, 사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이 외딴섬처럼 아픔을 담고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장 동창은 '엄마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장 동창과 '어깨동무'가 지난 15년간 진한 열정과 정성을 쏟아온 '꿈, Framing Our Dreams'는 이러한 고민의 열매로 탄생했다.

아이들의 꿈을 프레이밍하는 사진이라는 매개체

"2010년경에 남편하고 인도여행을 갔는데 인도의 한 사창가에서 미국에서 온 한 사진작가가 아이들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줘여 주고 스스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밥도 짖고 매 맞으며 사는 사창가 아이들에게 멀을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사진기를 줘여 주는 게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반응이었

어요. 무척 즐거워하고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인도 여행에서 목격한 이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은 장 동창은, 그 사진작가의 프로필과 작업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자나 브리스키(Zana Briski)라는 영국 출신의 저명한 사진작가였고, 그 작가가 뉴욕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찍은 사진으로 '사창가의 아이들'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그 아이 중 한 명을 네덜란드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더라고요."

여기서 영감을 얻은 장 동창은 카메라와 사진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어깨동무' 멤버들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한 대기업에서 후원한 30여 대의 카메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25명의 아이와 25명의 멘토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 작업에 따뜻한 비평을 더한 김보성 작가님 등 많은 분이 이 작업에 함께 해주셨어요."

'꿈, Framing Our Dreams'는 아이들이 직접 출사를 나가 사진을 찍고, 스스로 찍은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진과 글을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장 동창은 "첫 번째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가까운 경복궁 같은 곳으로 출사를 나갔어요. 평소에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시설로 돌아오고, 주말에도 야외 활동이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출사는 신나는 주말 나들이였죠. 가볍게 사진을 찍는 출사였지만, 25명의 아이마다 한 분의 멘토 선생님이 짝을 이뤄 진행했기 때문에, 50여 명이 함께 움직이는 큰 행사였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왜 아이들 각자에게 일대일 멘토가 필요했는지 궁금했다. "꿈나무마을 아이들은 말도 잘 안 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캄보디아 안다나스쿨 어린이들이 사진을 매개로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맷기가 형성이 안 되면 절대로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심리치료사가 와서 아이와 대화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아이와 한 멘토 선생님이 1년 동안 꾸준히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인간적인 관계 맷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따뜻한 소통이었다. “아이들에게 ‘멘토 선생님과 너는 1년 동안 짹꿍이야. 출사를 나가서 3시간 동안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었죠.” 외부 세계와의 환경적인 단절과 깊이 아로새겨진 심리적 상처로 굳게 잡긴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애썼던 장 동창과 ‘어깨동무’의 사례 깊은 고민과 배려가 느껴졌다.

두 번째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소재로 글쓰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글쓰기 시간을 가졌을 때 아이들은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아이도 있었다. 장 동창과 멘토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글쓰기는 꼭 해야 하는 거야”라고 달래며 아이들을 독

려했다. 또한 아이가 사진에 대해 글을 쓰면 멘토 선생님이 그 글에 정성을 담아 답글을 써주었다.

세 번째 토요일에는 전문 사진작가인 김보성(포토그래퍼/비디오그래퍼, 현 경일대 교수) 작가가 멘토로 참여해 전문 작가의 시선과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는 비평의 시간을 가졌다. “김보성 작가님은 귀한 인문학 강연을 듣는 것 같은 비평을 해주셨죠.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아 주셨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따뜻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이뿐 아니라 함께 참여한 멘토 모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토요일은 그동안의 작업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발표 시간, ‘Show and Tell’로 이루어졌다. “처음 발표할 때는 사람들 앞에 선 것만으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저 울기만 했죠. 한 번도 그런 기회나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꿈카’,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으로 열매 맺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어쩔 줄 몰랐던’ 아이들은 15년 동안 해마다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그동안 열 번의 전시회를 가졌어요. 광화문 한복판의 큰 공간에서 열었죠.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전시회의 주인공이자 당당한 ‘사진작가’로서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어요.” 한 줄의 글쓰기조차 낯설고 힘겨워하던 꿈나무마을 아이들이 대규모의 갤러리와 불특정한 관람객이라는 낯선 공간, 낯선 타인을 마주하면서 동굴 속에 움츠린 채 품어왔던 두려움을 거두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경험을 얻게 된 것이다. “쭈뼛거리며 ‘예, 아니오’에 그쳤던 아이들의 ‘생각’이 짧은 문장이 되고, 글이 되는 과정을 지난 15년 동안 지켜봤어요.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변화와 성장은 여러 모습으로 이어졌다. “우리 ‘꿈카(장 동창은 이 카메라 프로젝트를 ‘꿈카’라고도 불렀다)’ 아이 중 한아이는 사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고,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에 진학했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던 꿈나무마을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은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자 둘모델이 돼 주었어요.”

장 동창은 아이들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교육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고 깨달았다. “카메라를 통해 아이들이 배운 것은 사진 찍는 테크닉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진에 담긴 온갖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하고, 글과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했죠. 보육 시설이라는 제약 많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에 쌓인 무언가를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출구’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융합 교육이에요.”

‘꿈카’ 아이들이 이룬 다양한 성과 중 사진 애세이집 『엄마, 집』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아이들과 함께 열 권의 책을 냈어요. 그 가운데 『엄마, 집』은 우리 ‘꿈카’ 아이들

15명이 사진 찍고, 글 쓰고, 편집까지 해서, 60년 세월을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 주셨던 수녀님들에게 헌정한 책이에요.” 장 동창이 건네준 책은 표지가 독특했다. 온통 흰 바탕에 제목조차 보이지 않는 책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 바탕에 점자처럼 도드라지게 요철 형태로 『엄마, 집』이라는 제목이 자리하고 있었다. 겉표지의 제목을 색채 없이 요철로 처리한 까닭을 장 동창은 이렇게 전한다. “아이들에게 수녀님들은 어머니였죠.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차마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고, ‘고아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기에 ‘집’임에도 ‘집’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자신들의 터전에 대한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픔 속에 가려졌던,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꿈나무마을 아이들의 삶이, 요철로 새긴 『엄마, 집』의 글자를 더듬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눔의 성장,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뤄낸 기적

장 동창은 최근에 ‘어깨동무’ 멤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장 동창의 캄보디아 방문은 그녀와 ‘어깨동무’와 함께 성장한 ‘꿈카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작년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캄보디아의 하비에르(Xavier)와 펠사(Pursat) 지역에 파견한 청년봉사대에 ‘꿈카’ 아이들 3명이 봉사대원으로 참여했어요. 2명은 하비에르 학교에서, 나머지 1명은 펠사의 안나 스쿨(Anne School)에서 8개월간 코이카의 후원으로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위생교육이나 문자 교육 등 흔히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술 교사로서 사진을 가르쳤어요. 자신들이 ‘꿈카’에서 배웠던 과정을 캄보디아 아이들의 수업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청년이 된 ‘꿈카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



'꿈카 청년들'의 캄보디아 경험은 'Framing Our Dreams'의 씨앗이 풍성한 나무로 자라 꽃을 피우게 되는 성장과 선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게하고, 글을 써 보게 했고, 이들이 보여 준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는 캄보디아 현지는 물론 코이카 관계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이들의 '카메라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은 코이카의 주선으로 세 명의 청년들의 캄보디아 방문기가 책으로 출판되었고, '꿈카 청년들'은 『Eyes of Hope : 새로운 세계로부터』의 저자로서 2023년 9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독자들과 만나는 '북토크'도 가졌다. "북토크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말을 잘하는지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라고 말하며 장 동창은 타인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만큼 건강하게 자란 '꿈카 아들'에 대해 대견함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꿈카 청년들'의 캄보디아 경험은 장 동창과 '어깨동무'가 뿌렸던 '꿈, Framing Our Dreams'의 씨앗이 풍성한 나무로 자라 꽃을 피우게 되는 성장과 선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지난해 장 동창과 '어깨동무'는 세 청년의 캄보디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캄보디아 응원단'으로 현지를 방문했고, '카메라 프로젝트'에 감동한 현지 안나 스쿨의 요청으로 두 번째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11월 방문은 '카메라 프로젝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수업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수녀님이신데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 사진 수업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아주 좋 아하세요. 더욱 인상 깊은 것은 아이들이 이 사진 수업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였어요. 사진 수업이 안 열리는 날에는 교실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사진 수업이 진행되면, 1년에 두 차례 정도 김보성 작가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비평 수업도 가질 예정이고, 나아가 아이들의 사진을 수합해 엽서, 책갈피 등 사진의 결과물을 작품화 할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장 동창은 2024년 3월 탄자니아 '소년의 집'이라는 학교의 개교 행사에 초대받아 방문할 예정이다.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마리아수녀회의 권 글라라 수녀님이 탄자니아로 터전을 옮겨 해외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탄자니아 정부와 마리아수녀회가 함께 설립하는 이 학교의 개교 축하 행사에서 꿈카의 스토리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은평구 꿈나무마을에서 시작된 장 동창과 '어깨동무'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캄보디아와 탄자니아라는 지구촌 저 너머로 소중한 나눔의 무지개를 띠우기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은 선한 의지를 느낄 때가 있다. 때때로 우리 안의 선한 의지가 인도하는 바대로 작은 나눔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한다. 때로는 봉사의 형태로, 때로는 작은 기부의 방식으로. 그러나 긴 세월을 통해 한결같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아름다운 이화인' 장 엘리사벳 현주 동창의 지난 여정이 '아름다운' 까닭은, 멈추지 않고 어려움을 헤치며 지속한 이러한 '한결같음' 때문일 것이다.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음악'과 '이화'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하모니 딸들에게 멋진 귀향 연주회 열어줘

2023년 10월 14일(토) 부산문화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출신 서혜리(피아노 03) 동창의 독주회가 열렸다. 서 동창의 독주회가 특별했던 것은 서 동창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 주는 부산출신 이대 음대생 어머니들의 모임, '재부이화음대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성공적인 독주회를 마친 서혜리 동창은 어머니회에 대해 감사 인사를 남겼다. “제가 이대 졸업 후, 유학까지 갔다가 귀국한 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독주회에 오셔서 응원해주시니, 언제나 든든한 마음이에요. 이번 독주회도 어머니들의 기운을 받아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부산출신 '이화 음대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어머니들은 사실 이화출신 동창들이 아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전공을 살려 모두 음악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당신의 딸들이 이화의 이름으로 각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회원의 자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달려오는 어머니들. 내 자식 일처럼 당연하다는 듯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그림에도 마치 총동창회 산하 작은 규모의 지부 같은 모습을 오롯이 가지고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따로 똑같은 마음

어머니회는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모

임이다. 모임이 결성된 계기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파이프 오르간 덕분이었다. 당시 학교 대강당에 있던 오래된 오르간을 새것으로 바꾸며 음대생들에게 기금을 모금했다. 그때 고(故) 최 송 어머니회 1대 회장은 학교에 의뢰해 음대생 어머니들의 명단을 받아 연락을 돌렸다. 누구보다 소리를 아는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이화가 파이프 오르간을 마련하는 것을 즐거운 숙명처럼 받아들였다. 모두 적극 참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했던가?

“어머니회의 초대 회장님의 폭넓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모여서 밥 먹는 걸로 끝내지 말고 아이들이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귀향 연주회를 마련해 주자’라고 제안하셨죠.”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는 김미순(정은정(피아노 04) 동창 어머니) 회장의 소개처럼 어머니회는 이화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딸들에게 '부산 귀향 연주회'를 열어 주는 전통을 만들기로 했다. 충동적으로 일회성 행사로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화의 이름을 빛내면서, 음악인으로서 자녀의 미래를 확장해 주고 싶었다. 어머니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먼저 회칙을 만들었다. 3장 14조로 이루어진 회칙 서두에 모임의 명칭과 목적을 공표했다. 제2조 '본회는 1988년 7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부 학생들의 예능 활동을 도우며 격려하고,

학교에서 연마한 소질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본 어머니회원 후원으로 귀향 연주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어머니들도 자질 향상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운영 방침,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을 기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칙을 공고히 했다.

"이런 회칙 덕분이기도 하고 열정적인 선배들 덕분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연주회를 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어머니들이 다했어요. 집안 식구를 동원해서 부경대, 경성대부터 시작해서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포스터도 직접 붙였죠. 날짜가 확정되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 4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음악인으로 활동하는 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보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는 어머니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작곡 등 음악가로 전문성을 향상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문화적인 토양의 차이가 때로는 장벽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더 힘을 모았다.

다들 이벤트사의 직원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일했다. 홍보하고 스폰서를 의뢰하면서 귀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프로 같은 아마추어들이 발로 뛰었다. 다들 의욕 충천이었다. 비록



(위) 올해 열린 서혜리 동창의 연주회를 찾아 격려를 아끼지 않은 재부이화음대어머니회. 내 자식 일처럼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래) 이대 음대 합영림 교수와 그 제자들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 참석한 모습. 재부이화음대어머니회는 음악과 이화라는 인연을 매개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거칠게 운영한 귀향 연주회였지만 그런 것조차도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온 기술과 갈고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 귀향 연주회를 통해 어머니들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딸이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왔을지 어렵잖이 느낄 수 있었다. 또 딸이 어떤 음악가로 성장할지 조심스레 미래를 점쳐 보는 동안 기대와 불안, 음대생 어머니로서 느꼈을 감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응원할 수 있었다.

“음대생 어머니들은 무언가 특별해요”

함께한 세월만큼 어머니들의 의리 또한 대단하다. 모임에 대한 각자의 소회를 들어보면 실감할 수 있다. “연주회가 열린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죠. 또 아이들 결혼식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첫아이를 낳으면 금반지도 선물해요.”

“연주회는 관객 동원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 마음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딸이 힘내서 연주할 수 있도록 관객 동원에 힘써 주고 한마음으로 협조하고 자기 일처럼 참석하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음대생 어머니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요. 모임 할 당시 느낀 건 음악을 시킨 어머니들에게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려면 끈기와

열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을 지지해 주는 어머니
들도 그게 있어야 하죠.”

“어머니들이 하나같
이 다 감성적이고, 공감
하고 응원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요. 이렇게 따뜻한 모임이 없죠.”

“딸이 지금은 피아노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투자한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속상하기도 했고, 다른 딸들 이야기를 듣거나 연주회를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리 만족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론 언젠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을 도우면서 저희가 힐링 되어요. 내 딸의 연주회도 물론 감격스럽지만 이제는 내 딸의 연주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음악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우리도 아이와 함께 몇십 년을 음악에 젖어 있다가 이런 기회로 연주회에 한번씩 오면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나를 위한 시간이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각자 모임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지만, 딸을 사랑하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으로 모여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어머니회.

“애들이 졸업한지도 벌써 한참 됐으니, 애들은 엄마가 거기 왜 나가냐고 해요. 그런데도 그냥 딸이 이대 음대라는 명목으로 엄마들끼리 모이는 게 좋은 거죠.”

“모임의 막내인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딸을 대학까지 보낸 엄마들끼리 뭘 한다는 건지, 웬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모임에 나와서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딸들 연주회를 해준다는 게 무척 좋았어요. 그걸 오롯이



그동안 후원한 귀향 연주회 포스터들

스스로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엄두도 안 나는데 선배들 덕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 애는 행운아예요. 저희 애가 2017년에 마

지막으로 귀향 연주회를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속상한 일이다. 어머니회의 최대 위기이다. 2014년 학번 이후부터 회원 모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부산 출신 음대 이화인을 찾는 길이 차단된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까지. 하지만 굴하지 않는다. ‘끈기’ 하면 음악인의 어머니들이 아니겠는가. 딸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숨하게 자신을 희생해 온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모임의 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회 2대 회장인 김숙희(탁양지(관현 95) 동창 어머니) 고문은 ‘딸 나이 또래의 후배 어머니들과 어울리며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머니회는 의의가 크다’라며 모임 지속의 의지를 단단히 보인다. 그래서 기존 회원의 친목을 더 돋독하게 하려고 한다.

어머니회 회원들은 그 힘을 여행에서 얻고자 했다. 지난 11월에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과 교감을 나눈 여행의 시간,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모두 벗고 자유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딸의 미래에 자신을 걸고, 어제를 살아온 그들. 이번 여행만큼은 온전히 그들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함께 화합을 이루어냈다.

음악의 하모니를 사랑하는 이화의 어머니들. 어머니회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음악인을 길러낸 그들의 끈기가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영국 박은경 동창

진리를 위해 바로 서서 공동체 섬길 수 있기를

7월 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여섯 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이란인, 한 명의 이탈리아인, 한 명의 인도인, 그리고 두 명의 영국인이었습니다.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세례식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영혼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편 박계원 선교사는 이곳의 한 신학교 요청으로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배우는 한국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과정을 5월 4일(목)부터 7월 13일(목)까지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을 기억하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스페인어권 교회를 섬기며 배운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세巴斯찬과 카밀라 등 사역자들이 배운 것을 십분 활용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사역하는 토니 장로님을 비롯해 몇몇 성도들이 질병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년의 리넷이라는 여 성도는 1년의 암 투병 끝에 남편과 딸을 남겨 두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넷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독신으로 돌봐 줄 가족들이 없는 할머니들(헤이즐, 질, 조안)을 교회가 보살피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파송 교회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입니다. 유대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내민 손을 선뜻 잡아 주시고 섬김과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동역을 기대합니다.

남편 박계원 선교사는 지난 3월부터 유대인



선교 단체인 Chosen People Ministry의 영국 지부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국제 대표 등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잘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에 이어 2023년 10월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가 주최하는 이스라엘 아카데미를 섬기기 위해 남편 박계원 선교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엔 ‘유대인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전체 주제로 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이론적인 근거와 실제적 전략 등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교회 찬양팀이 연합하여 주일 예배를 섬길 뿐 아니라 지역 양로원에 가서 찬양 전도 집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주중에 일이 있거나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인데도 한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여 어르신들과 찬양, 간증, 말씀 선포 등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이 모임을 통하여 가련하고 외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미 믿고 계신 어른들과 따로 모여 성찬을 나누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중에 만나고 있는 이란 자매 자라(Zara)는 열심히 하다가도 본인 내면의 문제, 외적 인 어려움에 눌리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반석이 신 예수님 위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계속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믿지 않는 본인 가정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에 새로 정착하는 가정들과 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 바로 서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초등학교 4학년에서 맡았던 장애 아동 샘(Samuel)이 9월부터 5학년이 되고, 저도 5학년에서 함께 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유대인 초등학교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증거 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감사 제목은 1. 교회 사역에 열매를 주심 2.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워 주심 3. 가족에게 건강과 화목을 주심입니다. 아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박은경(유교 95)



기도해 주세요

1. 토니 장로님의 전립선암 치료가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고 완쾌되어서 부름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소서.
2. 성도님들의 신앙이 계속 자라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도록 인도하소서.
3. 큰 아들 기연이의 직장 생활과 둘째 세연이의 대학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동창회 소식

— 1 —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장 엘리사벳 현주 동창 선정

2023년 9월 26일(화) 오전 11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김영주(유교 71) 고문,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부회장 등 총동창회 측 선정위원 9명과 모교 측 선정위원 2명, 모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가 열렸다. 선정위원들은 최근 외부에서 수상한 경력이 없는 후보에게 기회를 주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총 7명의 추천 후보 중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은 2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차후 실사를 통해 재검증하기로 하고 선정위원회를 마쳤다.

보름 후인 10월 13일(금)에는 두 후보자의 봉사 현장(각각 서대문과 강원도 철원)을 방문하는 실사가 이루어졌다. 선정위원 실사단이 현장에서 확인한 두 후보자의 모습은 추천 서류의 내용과 일치했으며 오히려 더욱 역동적이었고, 두 후보자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후 선정위원들은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장 엘리사벳 현주(사회과교육 82) 동창을 '아름다운 이화인' 상의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장 동창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지부 어깨동무 대표로, 어르신·다문화 가족·요보호 아동·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2 —

대바자회 평가 및 하반기 행사 적극 참여 부탁

2023년 10월 정기 임원회가 10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2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진들은 '대바자회' 평가와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안건 토의를 했다.

먼저 '대바자회' 평가에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여러 임원의 수고 덕분에 4,000여 만 원의 순수입을 올리는 등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다녀간 동창들도 긍정적인 후일담을 전해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바자회 전체 규모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니 장소를 넓혀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안영호(중문 85) 인문대 회장도 "정문에서도 찾기 쉽도록 ECC 쪽 광장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대관해서 먹거리 판매와 일반 물품 판매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주 고문은 "먹거리 판매가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10월 정기 임원회 모습

올해는 10개 이상의 과에서 빈대떡, 각종 전, 분식 등을 판매했고 인기도 있어 일찍 매진되는 등 아주 풍성한 바자회가 되어 기뻤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14일(토)에 열릴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11월 27일(월) 총동창회가 개최하는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0월 10일(화)에 ‘이화인의 밤’ 행사 장소인 호텔 현장답사를 통해 게스트 대기실 및 선물 준비실, 무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왔다”고 보고했다. 임원진들은 두 행사 모두 안전에 유의하며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살피기로 했다.

— 3 —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보고, 성탄예배 등 현안 토의**

2023년도 11월 정기 임원회가 1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 열렸다. 먼저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당일 비가 많이 오는데도 대강당 내부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문제가 없었고 야외에서 도 활발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전하고, 208명 등록

인원 중 마지막 시상식까지 참석한 어린이가 191명 이었고, 작품 제출 후 먼저 귀가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17명의 아이들에게는 기념품을 택배로 보냈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티켓 판매를 위해 애쓴 데에 감사를 전하고, “매년 총동창회에서는 티켓 대금과 바자회 등 수익금을 모아 모교발전기금으로 모교에 전달하며 이 중 일부는 총동창회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화인의 밤’에 아르바이트 학생 10명에게 기념품 포장을 일률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안내하고, 임원진은 행사 당일 동창들의 행운권 수거와 기념품 배분 및 선후배 동창 입장 안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12월 7일(목) 3시에 대강당에서 ‘이화 가족 성탄예배’를 교목실에서 주관하고 총동창회에서 협력해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학생들 외에 동창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한다고 안내했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이화 가족 성탄예배’는 인문대, 학교 본부, 총동창회 등에서 각각 따로 성탄예배를 드렸던 것을 장 상총장 재임 중에 행사를 합쳐 매년 12월 첫 번째 주 목요일에 대강당에서 이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유래를 설명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모교 교목실에서 성탄예배를 주관하지만 현금은 이화 동창 선교사들에게 전액 전달이 된다고 안내하였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교목실 회의에서 “성탄예배를 중강당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강당으로 옮기면 그 의의가 없어지니 동창들이 많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다녀온 것을 보고하고 “북미주 전역에서 모인 동창들의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은주 부회장은 “하버드대와 MIT공대의 젊은 유학생들이 행사를 돋는 게 인상적이었고, 보스턴 지회 구성원은 95세 동창부터 올해 2월 졸업한 동창까지 연령층이 넓고 다양했다”고 전하며 “긴 세월 동안 선배들이 단단하게 이루어 놓은 지회의 규칙들을 보면 서 고국의 우리도 건강하게 잘 조직을 운영해야 해 외 동창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 4 — 정미조 동창 공연에 큰 찬사 보내며, 일리노이 지회 인준 통과

총동창회는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간단한 도시락으로 애찬을 함께하며 한 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김곡미(디대원 93) 디대원 회장은 행사장에서 특별 후원금 상자를 마련하는 방안, 참석을 희망하는 동창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티켓 판매가 어려운 곳에 힘을 보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변은경(간호 83) 간호대 회장과 황복기(화학 83) 자연대 회장은 티켓 판매가 어려웠지만 참석자들 모두 “정미조 동창의 공연이 매우



12월 정기 임원회

감동적”이라 평했고 심지어 “강매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정미조 동창이 공연하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소속사의 말을 전했다. 정 동창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적극 사양했고, “동창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누게 되어 너무 고맙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정 동창에게는 배꽃 금형으로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화 가족 성탄예배’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감사해하며 조선영 선교부장은 “여느 때보다 많은 재학생과 동창이 참석했고 현금도 많이 들어와 총 1,554만 7,000원을 지난 12일(화) 135명의 동창 선교사에게 송금 완료하였다”고 보고했다. 이경숙 고문은, “장상 전 총장이 ‘이화 가족 성탄예배’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예배가 되기를 소망했다.

기타 안건으로, 북미주 일리노이 지회 인준 건이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23년 정성과 수고로 총동창회 일에 앞장선 임원진들은 2024년 2월 15일(목) 정기 임원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2023년을 마무리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부 가을 수련회와 캄보디아 학교 방문

선교부 기도 모임에서는 10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경기도 광주의 광림수도원에서 1박 2일 가을 수련회를 하였다. 특강 강사로 온 김정효(초교 81, 이화여대 사범대 초교과) 교수는 2024년 2월 은퇴를 앞두고 이화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였다. 김 교수는 2006년부터 8년간 이대부속초등학교(이하 이대부초) 교장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기독교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우게 된 일에 감사하였다. 마침 김 교수는 2009년에 캄보디아에 세워진 이화스렁학교를 학부모와 학생들과 함께 가서 섬기며 이대부초의 선양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한 학부모 기도회가 영적 지렛대가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가 연합하여 이화가 받은 사랑을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며 이화스렁학교를 섬길 때 하나님이 이대부초를 든든히 세워 가심을 체험했다고 증거했다.

선교부에서는 개교 14주년을 맞는 캄보디아 이화스렁학교, 스렁세종학당의 오프닝 참석을 위해 5명의 동창들이 10월 20일(금)부터 23일(월)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김유선(대학원 목회상담

04) · 홍유안(국제학부 16) · 송인숙과 이철희(간호 88) · 유미(약학 82) 동창 선교사들을 만나 격려하였다. 김유선 동창 선교사는 이화스렁학교 교장으로, 홍유안 · 송인숙 동창 선교사는 이화스렁학교 교사로, 이철희 동창 선교사는 스렁보건소장으로, 유미 동창 선교사는 스렁학교 구강위생 및 치위생사 교육에 도움을 주며 이화의 선교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많은 동창 선교사들이 귀국하여 선교부 화요기도 모임에 방문하였다. 김리디아(사회과교육 89) · 신율미(수학 84) · 노선영(성악 02) · 함정희(기독 74) · 정보영(사회 85) · 김경옥(국문 84) · 한현주(피아노 90) · 정인혜(수학 94) · 허경(초교 94) · 송유순(무용 85) 동창 선교사 및 박계원(박은경(유교 95) 선교사 부군) 선교사 등이 비자 문제, 안식년, 질병 치료, 가족의 애경사 문제 등으로 방문하여 선교지 소식을 전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하는 장은혜(영교 85) 동창 선교사는 국립 아디스아바바대학의 교수로서 그곳 여성지도자를 키우고 있는데, 한국 방문 후 암 수술을 하고 3개월간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무슬림 난민 사역을 하는 허경 동창 선교사는 2024년 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에 등재 예정이다. 사범대의 교육과 선교 과목에서 체류 기간 중 초청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선교부 가을 수련회



글 · 성혜옥(영문 70,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

모교소식

— 1 —

2023 국가고시 등에서 이화인 빛나는 성과 거둬

- 2023 국가고시 5급 공채 행정직 6명, 기술직 2명, 외교관 후보자 2명 총 10명 합격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배출
-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이화인 48명 최종 합격

국가고시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등 전문자격시험에서 이화인들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구 행정고시)에서 8명이 합격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2명이 최종 선발돼 모교는 총 10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외교관 후보자 선발자 중에는 수석합격자도 포함됐다.

곽찬란(정외) 학생과 최다빈(정외 21) 동창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해 향후 1년간 국립외교원 연수교육을 거쳐 외교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최다빈 동창은 수석 합격자이다.

5급 행정직에서는 전체 여성 합격자 비중이 작년 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모교 출신 6명이 합격했

다. 이해빈(특교 22)·김은지(행정 14) 동창, 정현아(국어교육)·이신행(경제)·최민영(커미부) 학생이 일반행정직에, 정지윤(사회과교육 19) 동창이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

5급 기술직에서도 2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윤형은(화학신소재공학) 학생과 김세림(전자전기공학 23) 동창이 합격의 영예를 안아 여성 공학도 양성의 보고로서의 모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8월 30일(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에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 48명이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130명 이상 줄어든 합격자 수와 여성 합격자 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교는 작년에 이어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해당 시험 최초 합격자가 나온 이래 올해까지 모교가 배출한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는 총 753명에 이른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월 25일(수) 공개한 제60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모교 재학생 및 동창 18명이 최종 합격하며, 역대 최다 합격자 배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합격률이 소폭(0.49%) 하락한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86명(41.4%)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교는 역대 최다 18명(20.9%)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 2 —

세계적 석학 초청 특강 개최

모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George F. Smoot) 교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ézio), 세계적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 교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 세계적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Siegfried S. Hecker) 박사 등 세계적 석학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자연과학대학(학장 이상혁)은 9월 25일(월) 종합 과학관에서 2006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 교수를 초청해 ‘오늘날의 우주론(Cosmology Today)’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현대물리학 최고의 석학인 조지 스무트 교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비등방성의 발견’을 이끈 공로로 2006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무트 교수는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지원으로 2008년 모교 석좌교수로 초빙돼 우주의 탄생 원리와 과정을 연구하는 모교 초기우주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통역번역대학원(원장 김혜림)은 10월 30일(월)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르 클레지오 작가는 2007년 모교 석좌교수로 1년간 프랑스 문학과 문화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나의 수도자 오두막의 추억’을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서울에서 지난 1년간 『빛나: 서울 하늘 아래』, 『폭풍우』 등 작품에 영감을 받았던 경험과 작가가 ‘수도자의 오두막’으로 칭하는 모교 기숙사 한우리집에서의 추억을 전했다. 특히, 한우리집의 생활 모습, 건물 구석구석 곳곳을 탐색해 갔던 일,

구성원들과의 일상 등 모교 기숙사 생활에서의 단상과 일화를 소상히 풀어 놓아 이화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제대학원(원장 Brendan Howe)은 11월 7일(화) ECC 이삼봉홀에서 세계적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세계 최고의 북핵 전문가이자 지난 30년이 넘도록 비핵화와 핵무기 정책, 핵安保 분야에서 국제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핵물리학자로,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명예 소장 이자 스탠퍼드대학교 명예교수다. 헤커 박사는 ‘한지 포인트(Hinge Points): 북핵 문제의 내부 전망(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3 —

간호대 120주년, 수학과 70주년, 융합보건학과 60주년 맞이해

한국 간호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모교 간호대학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10월 19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학술 심포지엄과 동창 재상봉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미 총장, 김영경 대한간호협



간호대학

회 회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변은경(간호 83) 간호대 동창회장을 비롯해 간호학과 명예교수, 동창, 간호학계 관계자 등 330명이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1부 학술 심포지엄 행사는 김진희(99) 글로벌건강 간호학전공 주임교수의 사회로 문을 연 후 강윤희(94) 간호대학장의 개회사와 김은미 총장, 김영경 대 한간호협회 회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김석선(97) 간호대학 부학장이 간호대학 연혁을 보고한 이후 상지대 간호학과 이꽃미 교수가 '역사적 시각으로 본 이화간호교육(Historical Perspectives on Ewha Nursing Education)', 미국 듀크대 매릴린 외르만(Marilyn Oermann) 교수가 '미국 간호교육의 현재와 미래(Present and Future of Nursing Education in USA)', 모교 교육학과 정재영 교수가 '미래사회 고등교육의 방향(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강윤희 간호대학 학장이 '이화간호의 미래전략(Future Strategies for Ewha Nursing)'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신수진(96) 이화간호과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양대 김정아(92) 교수, 연세대 이향규(89) 교수, 한국교통대 정승은(86) 교수, 삼성서울 병원 류한주(00) 파트장이 참여해 간호교육과 실무의 전문가로서 패널 토의 시간을 가졌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학과장 이준엽)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9월 22일(금) ECC 이삼봉홀에서 '수학

과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창립 70주년 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장상(수학 62) 전 총장을 비롯해 김정선 학사부총장, 이상혁 자연과학 대학장, 박종일 대한수학회장, 김현민 국가수리과 학연구소장, 문 온(87) 수학과 동창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수학과 동창회(회장 문 온)는 4,250만 원의 장학기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어서 사회봉사 부문에 이인숙(79) 전 중국 연변 과기대 교수, 과학기술진흥 부문에 이향숙(86) 모교 교수, 전문직 부문에 이정순(75) 교사, 노선숙(79) 모교 명예교수, 김민경(85) 모교 교수, 임보해(95) 카이스트 교수, 나세리(84)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정의선(94) 메트라이프생명 부사장, 김진희(87) KCA 전략산업본부 상무, 이상희(94) OBS 라디오본부 차장, 동창회 공로부문에 권오항(78) 동창 등 11명이 '자랑스러운 수학과 동문상'을 수상했다.

융합보건학과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10월 21일(토) 11시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은 1963년 창립 아래 국내 보건 교육과 보건 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주도해 온 60년을 축

수학과(위)와 융합보건학과(아래)



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융합보건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 동창과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선희 교목실장이 인도하는 학과 60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이계온(융합보건 87) 융합보건학과 동창회장의 개회사와 김은미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신산업융합대학 김혜경(융합보건 87) 학장의 환영사와 안정훈 융합보건학과 학과장의 학과 연혁 및 교수 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융합보건학과와 융합보건학과동창회는 'Ewha West Campus 건축기금' 4,600만 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기금전달식 이후에는 김명(74) 명예교수가 건강 교육과로 시작해 보건교육과, 보건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로 변화해 온 과정을 회고하며, 많은 변화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했다. 이어서 지난 2021년 5급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던 최한슬(21) 동창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화보건인상'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융합보건학과 재학생을 대표해 황유라(21학번) · 조윤수(21학번) 학생이 학과활동 및 학생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4 —

모교 연구팀 주도로 전 세계 선도하는 신개념 양자컴퓨터 개발 초읽기

모교 물리학과 석좌교수 안드레아스 하인리히(Andreas Heinrich) 단장이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 연구팀이 일본, 스페인, 미국 연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의 양자컴퓨터와 전혀 다른 획기적 설계 방식을 바탕으

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컴퓨터 플랫폼을 제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10월 6일(금, 한국시간) 게재됐다.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교수 연구팀은 10월 5일(목) 모교 연구협력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체 표면 위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이용하는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하고, 세 개의 전자스핀으로 '복수 큐비트(양자비트)' 시스템까지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향후 모교 연구팀의 주도로 양자정보과학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은 고체 표면 위 단일 원자의 양자적 특성 분야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자체 개발한 최첨단 장비 '전자스핀공명 주사터널링현미경(ESR-STM)'을 이용해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제어하고 큐비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플랫폼은 탐침을 이용한 상향식 집적 방식으로 큐비트 간 정보 교환을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모교에 위치한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2017년 1월 설립된 이래 물질의 표면과 계면에서의 원자 단위 양자 효과를 제어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장인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교수는 20년 가까이 미국 IBM 알마텐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다 2016년 이화여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로 합류했다. 2017년 조셉키슬리상, 2018년 파인만상을 수상했으며, 그가 수행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모리, 원자단위로 정보저장'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순수기초·인프라 분야의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인 독일 휴볼트 연구상을 수상했다.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_ 이혜경(정외 88)

회장단 모임에서 신임 회장 추대

2023년 10월 30일(월) 11시 30분, 강남 압구정동 라인 옴므에서 사회과학대학 회장단 모임이 열렸다. 사회과학대학 각 과 회장들인 이혜경(정외 88)·임복희(행정 93)·김노미(문정 88)·오기애(커미부 85)·김정진(사복 80) 동창과 조성남(사회 77) 회장 위임으로 강혜영(사회 84) 사회학과 총무과장은진(심리 90) 회장 위임으로 이해석(심리 93) 동창 등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이혜경 회장의 주재하에 신임 사회과학대학 회



장 추대가 이루어졌고, 임복희 행정학과 회장이 선임되었다.

자연과학대학

회장__ 황복기(화학 83)

식품공장 견학과 관광지 다녀온 가을 야유회

2023년 10월 17일(화), 국내 유수의 식품공장 견학과 함께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제천 청풍호반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총 97명의 동창이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1,2호차는 오뚜기 대풍공장으로 3호차는 삼양식품 원주공장으로 출발하였다. 레토르트 제품과라면 등의 제품들이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지는 식품공장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연과학대학 출신 동창답게 수준 높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공장 관계자들은 “이제까지 진행한 견학 중에 가장 연배 높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가장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신다”고 놀라워하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창도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에서 휠체어를 옮겨 주는 등 공장 관계자들이 세심하게 신경써 주어서 지식 레벨업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한 견학에 모두 만족하고 흐뭇한 시간이었다.

제천 청풍호반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온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두 번째 방문 장소는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 전망대에 도착하였다. 자연이 펼쳐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사가 절로 났다. 넓게 마련된 전망대 공간에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셨고, 유퀴즈 게임시간에 흥빡 빠져 박장 대소하며 웃기도 했다. 알록달록 단풍이 시작되던 가을날 유쾌한 소풍 같았던 야유회는 동창들의 단합과 화목을 다시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졸업작품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조형예술대학 동창들

서는 강선희 동창의 듀엣 댄스로 ‘이화인의 밤’ 공연을 화려하게 마무리하였다.

조형예술대학

회장 __ 강승주(조소 87)

녹미합창단 ‘이화인의 밤’에서 공연

2023년 11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조형예술대학 졸업작품전이 조형예술관 A동, B동, 이화아트센터, 이화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강승주 회장과 임원 및 동창들은 11월 21일(화)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여 졸업작품전을 축하해 주었다.

11월 27일(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 조형예술대학 녹미합창단(강선희·강승주(조소 87)·김순미(장미 89)·김아영(도예 04)·김연화(동양 88)·노 실(장미 79)·박선희(장미 88)·박은선(조소 98)·방지희(조소 87)·봉지희(섬예 85)·신미선(서양 85)·신영선(장미 88)·예미령(조소 84)·이상형(동양 92)·이예선(장미 88)·이재숙(도예 86)·임형순(서양 97)·전영선(섬예 88)·차명임(서양 82)·현경원(서양 85) 동창)이 초대되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녹미합창단은 9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며 준비하고, 완성도 있는 무대를 위해 노력하며 멋진 무대로 ‘이화인의 밤’을 빛내 주었다. 녹미합창단 공연은 학창단원들이 개사한 <눈이 부시게>를 화려한 안무와 노래로 멋지게 완성하였고, 후반부 공연에

경영대학

회장 __ 윤은주(경영 89)

둘레길 걸으며 건강과 친목 다져

2023년 11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대공원 둘레길에서 ‘이화 경영인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2기 동창생부터 23기 동창까지 다양하게 참석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 행사는 모교의 안산 둘레길 걷기와 함께 격년으로 이어지며, 정례화하여 더욱 많은 동창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다시 안산 둘레길을 걷고 모교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의과대학

회장__임선영(의학 82)

제16회 영닥터스포럼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4시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컨벤션센터(대강당)에서 제16회 영닥터스포럼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유경하(의학 84) 이화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하은희(의학 87) 의대 학장 및 임선영 회장, 집행부 임원과 영닥터 등 총 93명이 참석하였다. 1부 학술 강의는 박미혜(의학 90) 산부인과 교수와 심소연(의학 99)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각각 산전 관리와 미아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식사 후에는 영닥터들이 참여하는 음악회 '나를 부른다'가 열려 삭막한 진료실을 떠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친목을 다졌다. 10월 22일(일) 광영신(의학 63) 동창과 임선영 회장 등 8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산정호수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조각공원과 데크 산책로를 지나 드라마 촬영지였던 돌담병원도 구경하고, 더덕불고기 백반과 사과대추로 맛 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친목과 건강을 다졌다.

11월 20일(월) 오후 7시 봉우리에서 이영주(의학 72) 동창과 임선영 회장 등 7명의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이영주 동창의 학업, 후배 양성, 모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영닥터스 포럼 및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간호대학

회장__변은경(간호 83)

주상절리길 걸으며 단합대회 가져

한국 간호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모교 간호대학이 창립 120주년을 맞아해 2023년 10월 19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학술 심포지엄과 동창 재상봉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미 총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변은경 간호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해 간호학과 명예교수, 동창, 간호학계 관계자 등 33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학술 심포지엄 행사(38p 참조)에 이어 2부 순서로는 동창 재상봉의 밤이 진행되었다. 변은경 회장의 개회사와 강윤희(간호 94)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찬송, 성경봉독, 기도가 이어졌다. 특송은 간호대학 동아리인 'Nurse for Christ'의 재학생, 동창, 그리고 역대 지도교수가 함께 준비했다. 만찬 이후에는 이대서울병원 권미혜(간호 95) 팀장과 이대목동병원 홍미경(간호 95) 팀장의 사회로 '이화, 더 원(Ewha, the One)'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1955년도 입학 동창에서부터 2019년도 입학 동창까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0월 26일(목)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 제8회 간호

창립 120주년 행사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대학 동창회 단합대회가 개최되었다. 변은경 회장을 위시하여 명예교수 이광옥(간호 61)·이자형(간호 70)·이광자(간호 71) 동창, 김성민(간호 95) 총무, 최고은(간호 16) 회계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다. 동창들은 철원 한탄강 물위길과 주상절리 잔도 길을 걷고 양식을 나누며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쌓았다.

등의 자세한 소개를 하였다. 2부 점심 식사에 이어 3부 총회, 4부 화합의 장의 순서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약학 24회 동창들이 <진주조개잡이> 음악에 맞추어 훌라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약학대학

회장__박병희(약학 84)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동창회장 선출

2023년 10월 24일(화)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 331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날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약학 24회·제약 3회 동창 축하식이 있었고, 제34대 약학대학 동창회장으로 황미경(약학 86) 동창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설원복지재단 안양의 집 양상을 바람의 관악4중주의 우렁찬 연주로 시작된 1부에서는 특별히 김은미 총장과 대외협력처 박민정 처장, 그리고 약계의 여러 리더들이 참석하였다. 김은미 총장은 격려사와 함께 EWC 약대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내하였고, 박민정 대협처장은 후원자 예우

생활환경대학

회장__우미형(의직 77)

고사리 수련원에서 가을 야유회

2023년 10월 19일(목)에 문경새재와 이대 고사리 수련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80명의 동창들과 함께 문경새재에서 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뒤 보물찾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대 고사리 수련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고 김옥길 전 총장의 지인께 수련원의 역사와 고 김옥길 총장님의 고사리 수련원 설립 목적에 대한 뜻깊은 이야기를 듣고 고사리 수련원에 대한 이화인으로서의 궁지를 갖게 되었다. 지난 봄 야유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참석한 이번 가을 야유회는 아령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협조로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화 아령회 로고를 넣은 고품격 야외 드자리와 생수를 아령회 기념선물로 준비해 동창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고사리 수련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온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__ 김경희(81)

4년 만에 떠난 가을 여행

2023년 9월 14일(목) 동창회 임원진들은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에게 발전기금 1,480만 원과 냉장고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학관 리모델링과 신축 이사에 도움이 되고자 임원들과 동창들이 뜻을 모아 모금한 것이다.

10월 19일(목)에 4년 만에 동창회 가을 여행을 떠났다. '강화 힐링여행'이라는 이름으로 47명의 동창들이 함께 길을 나섰다. 서울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지만 도착지인 강화는 화창한 날씨로 동창들을 맞아 주었다. 마니산 치유의 숲에서 가벼운 걷기를 시작으로, 맛난 점심으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을 둘러보고, 조양방직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오랜만의 외출에 들뜬 수다를 풀었다. 마지막 소창 체험관에서는 소창 손수건에 예쁜 스탬프를 찍으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선물을 가득 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웠지

만, 내년에는 더 멋진 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아쉬운 만남을 마무리했다.

11월 21일(화) 5시 '국문인의 밤' 행사가 있었다. 삼삼오오 웃으며 학관으로 찾아온 동창들은 시인 이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끝별(국문 87) 동창의 시어와 모어에 관한 특강을 들었으며, 기념 촬영 후 재학생들의 안내로 리모델링 및 신축된 학관을 둘러보았다. 예쁘고 짹짜한 후배들의 안내를 받으며 학관을 둘러본 동창들은 국문과에서 준비한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행복한 홈커밍데이를 마무리했다. 동창회와 아이소이 대표 이진민(86) 동창이 준비한 화장품을 품 안에 가득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행사를 마쳤다.



가을 여행을 다녀온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영어영문학과

회장__ 홍성미(78)

영학회 추계강좌와 '영문인의 밤' 행사

2023년 10월 12일(목) 영학회의 중추인 현 기간사와 차기 기간사 20여 명을 초청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관에서 '가장 진지한 고백—장옥진 회고전'을 관람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10월 26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963년 졸업 동창부터 2001



기 간사 모임에 참석한 영어영문학과 동창들

년 졸업 동창까지 동창 110여 명이 참가한 영학회 추계강좌가 열렸다. 다가오는 2025년 영어영문학과 창립 100주년의 의의와 기념행사에 관한 안내에 이어, 김정화 전 서울공예박물관장의 ‘시대를 품어 태어나고 변화하는 미술관’ 강의를 듣고, 도시락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1월 14일(화) 총동창회 바자회에 해마다 많은 물품을 후원하는 김진선(78) 동창이 영학회 임원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여 영학회의 운영과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조언 및 담소를 나누었다. 또한 영학회 임원들은 같은 날 EOC 아산봉홀에서 열린 영문학부 재학생들의 ‘영문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영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안내하고, 2025년 영어영문학과 100주년 사업을 소개하였다. 11월 16일(목) 영학회 전임 회장단 7명(윤미덕(59)·최청규(65)·박은경(68)·정희선(69)·안미순(71)·남덕자(73)·이정숙(77) 동창)을 초청하여 영어영문학과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영문과 관련 사료 모집에 도움을 청하였다. 11월 27일(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 『영어영문학과 100년사』 책의 집필자(김인성(80)·김윤정(91) 동창)들과 1974년, 1994년에 졸업하여 2024년에 각각 50·30주년을 맞이할 동창들, 새롭게 임원에 합류한 1982년 졸업 동창들과 영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지연(75)

임시 회의를 열고 여러 안건 논의

2023년 10월 25일(수) 역삼동 해우리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는 12월에 있을 송년회 겸 신입동창 환영회 등 행사 준비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했고, 2024년을 이끌어갈 회장단도 선출했다.

새 회장에는 ‘20기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던 24회 박지나(90) 동창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지나 동창은 현재 아이링스 유한책임회사의 CEO를 맡고 있는 기업인이자 플라워 아티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 부회장에는 황지숙(92)·송원자(93)·김수현(93) 동창이 선정되어 수고 할 예정이다.



새 임원진을 선출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기독교학과

회장__김미희(86)

소통과 나눔의 동창회 모임

2023년 9월 23일(토) 이대 후문 다락방전도협회 강당에서 동창회 모임을 갖고 23학번 새내기 재학생부터 72학번 졸업 동창까지 50년의 간격을 뛰어 넘어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3학번 새내기 재학생부터 72학번 졸업 동창생까지 한자리에 모인 기독교학과 동창회 모임

이윤경(91) 기독교학과 교수의 기도로 시작, 박경미(86) 기독교학과 교수의 ‘우리 과 이야기’ 강연과 어려운 교가 가사를 해석하고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동창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주로 다녀왔다. 10월 26일(목)에는 창경궁과 창덕궁으로 가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인 나각순 선생님의 궁궐의 건축과 역사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1월 23일(목) 모교 진관에 위치한 자연솜씨에서 간사회를 열고 이화역사관을 탐방하며 ‘이화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4일(금) 이화사학연구소의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새롭게 단장한 학관을 관람하였다.

사학과

회장 __ 최유리(84)

정기 학술 답사 다녀와

2023년 9월 21일(목) 인사동 선천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동창회는 《사우회보》 발간 및 전산화 계획 그리고 동창회와 관련한 사진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기록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네이버에 밴드를 구축한 소식을 알렸다.

10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16명의 동창이 ‘통일신라 시기 탑과 능’을 주제로 정기 학술 답사를



정기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행정학과

회장 __ 임복희(93)

창설 42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1월 9일(목) 18시 30분, 모교 ECC B4 극장에서 행정학과 창설 4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제43대 학생회 김진주(재학생, 21학번)·김채은(재학생, 21학번)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행정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행정학과 동창들

1부는 강민아(영문 88) 학과장의 개회사, 임복희 회장의 축사 및 기도,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들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또한 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의 사전 질의 사항을 토대로 패널로 초대된 졸업 동창들 5인과 함께하는 Q&A 프로그램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어서 간단한 석식 후 퀴즈 및 행운권 추첨으로 2부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행정학과의 힘찬 행보를 기원하였다.

문헌정보학과

회장__ 김노미(88)

문정인의 밤 행사 열려

2023년 11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ECC 극장에서 ‘문정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정연경(85) 학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창회를 구성하는 문정동창회, 전문직 사서들의 모임인 엘프(Ewha Librarian Forum), 이도발(이대도서관학과 발전위원회)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식사를 마치고 최윤경(02, 국립중앙도서관)·곽윤지(14, 삼성 SDS)·김세은(21, 한화생명) 동창의 취업 준비와 그 과정, 전공과 업무 관계에 대한 생생하고 값



문정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문헌정보학과 동창들

진 이야기를 들었다. 모처럼 동창, 학부생과 대학생까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수님들과 동창회에서 마련한 경품 선물로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_ 오기애(85)

동창회와 함께하는 ‘뮤지엄&콘서트 나들이’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5대 동창회에서는 ‘뮤지엄&콘서트 나들이’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였다. 매월 1회, 동창회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페나 식당이 아닌 박물관이나 콘서트홀에서 만나 의미 있는 만남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이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에드워드 호퍼전’, ‘오르간 오딧세이’, ‘라울 뒤피전’, ‘한경아르떼 필하모닉 2023: 브랜든 죄 색소폰’ 등 네 차례의 특별한 나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동창들은 예술이 주는 감동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함께할 수 있었다.

2023년 11월 21일(화)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3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날 송년회에는 60여 명의 동창들과 8명의 전·현직 교수가 함께하며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고 추억을 나누는 동시에 지금의 동창회와 우리 학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는 취지로 ‘5분 만에 이해하는 블록체인’ 특강 및 커미부 프로젝트 장학생들의 프로젝트 연구 결과 발표 시간이 마련되었다. 정민아(96) 동창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이해를 위한 블록체인의 철학과 개념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설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들

명해 주었고, 선배들이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으로 참신하고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재학생들에게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식사 후에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60년의 역사와 관련된 퀴즈 풀이가 진행되었고, 퀴즈 정답자와 행운권 당첨자,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 선정자 등에게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다. 또한 제30호 동창회보 《시니어저널》이 배부되었는데, 기획기사 <60년의 진화,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그때 그 수업>이 동창들의 눈길을 끌었다.



신임 기 대표 환영회에 참석한 사회학과 동창들

회학과 1기 공정자(62) 동창을 비롯한 많은 선배 동창들의 따뜻한 환영이 있었다. 은퇴 후에도 섬세하고 너른 시선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선배와의 대화는 젊은 기 대표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자리가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김정진(80)

임원회 열고 동창들의 연대 위한 노력을 다짐

2023년 11월 7일(화) 모교 캠퍼스 진관에서 동창회 임원회를 열고 사업평가 및 2024년 계획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2023년의 결실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고, 동창회와 학과의 협력을 다지며 모교 후배들의 성장과 동창들의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11월 13일(월) 지난 8월 소천한 강

사회학과

회장__조성남(77)

제31회 사회학의 밤 행사 개최

2023년 11월 9일(목) ECC 아삼봉홀에서 동창 임원들의 초청으로 교수, 동창,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사회학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삼봉홀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회학도들이 모여 사회학의 역할과 앞으로의 길을 묻고 답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1월 15일(수), 논현동 한우리에서 2023년 신임 기 대표 환영회가 열렸다. 31기 꽈지영(92)·32기 박지혜(93) 동창이 새로운 기대표로 인사를 하였고, 사

동창회 임원회에 참석한 사회복지학과 동창들



복순(61) 동창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복순 동창은 생전 모교 사랑이 지극하여 모교에 2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에 모교의 대외협력처 팀장과 직원들도 함께 유족을 위로하고 강 동창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립 7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수학과 동창들

수학과

회장_문 온(87)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밤 행사

2023년 9월 22일(금) ECC 이삼봉홀에서 '수학과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수학과 교수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동창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학과의 발자취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윤진(수교 92)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의 기도에 이어 이준엽 학과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장 상(62) 전 총장을 비롯해 김정선 학사부총장, 이상혁 자연과학대학장, 박종일 대한수학회장,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문 온 수학과 동창회장의 축사도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수학과 동창회는 4,290만 원의 장학기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어서 사회봉사 부문에 이인숙(79) 전 중국 연변 과기대 교수, 과학기술진흥 부문에 이향숙(86) 모교 교수, 전문직 부문에 이정순(75) 교사, 노선숙(79) 모교 명예교수, 김민경(85) 모교 교수, 임보해(95) 카이스트 교수, 나세리(84)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정의선(94) 메트라이프생명 부사장, 김진희(87) KCA 전략산업본부 상무, 이상희(94) OBS 라디오본부 차장, 동창회 공로부문에 권오향(78) 동창 등 11명이 '자랑스러운 수학과 동문상'을 수상했다.

1부 기념식 행사는 수학과 70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이어 2부에는 진양해(92) 동창의 사회로 수학과 동창인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오혜경(87) 동창회 선교부장의 예배 인도와 문 온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권오향 동창의 기념 특강이 마련됐다. 권 동창은 '0의 인문학과 문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특강 이후에는 수학과 동창회 합창단과 모교 김효근 교수(경영학부), 소프라노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동창회 활동 보고, 경품 추첨 이벤트, 교가 제창을 끝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모교 수학과는 한국전쟁 중인 1953년 사범대학 소속으로 시작하여, 1962년에는 문리대로, 1982년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2023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았으며, 3,200여 명의 학사와 450여 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며 한국 수학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관현악과

회장_김내리(93)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3년 12월 11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영산아트홀에서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제22회 정기연주회는 로시니의 소나타 1번,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3번, 비발디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그리고 홀베르그 모음곡으로 실내악 레퍼토리 위주로 구성하였다.

김기순(기악 66) 동창이 단장 겸 상임지휘를 맡고 있는 이화챔버오케스트라는 모교 음악대학 동창들이 ‘이화음악’의 뿌리를 이어가고자 창단하였으며,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실내악 페스티벌, 플루트 양상블, 재학생 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또한 이화챔버오케스트라는 2008년부터 매년 모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의 재학생 중 우수 실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챔버오케스트라

동양화과

회장__이승은(89)

예비 동창들의 졸업작품 관람

2023년 9월 14일(목) 총동창회 대바자회가 모교에서 개최되었다. 동양화과에서는 임원들이 만든 키링, 목걸이, 휴대폰 고리 등 액세서리를 갖고 현장 판매에 참여했다. 11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



졸업 작품전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동양학과 동창들

지 조형예술관 A동 B동, 이화아트센터, 이화아트갤러리에서 조형예술대학 졸업 작품전이 열렸다. 30명의 동양화과 예비 졸업생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 동창들과 많은 미술 애호가의 관람이 있었다.

서양화과

회장__송은주(86)

48회 이서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최

2023년 10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이화아트센터, 이화아트갤러리, ECC 대산갤러리, 뉴욕 뉴저지 민권센터 MK Space의 4개의 공간에서 48회 이서전 ‘Chronicles: 그녀들의 이야기’을 가졌다.

이서전은 서양화과 동창 작가들의 정기전으로, 1949년 미술대학 1회 졸업생들이 경향신문사 후원을 받아 대원화랑에서 첫 번째 전시를 한 것이 이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린 48회 이서전 개막식



서전의 출발이 되었으며, 48회 동안 역사적 의미를 담으며,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1회와 2회 졸업생인 신금례(49)·한진수(49)·이경순(50) 동창은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졸업의 젊은 세대 작가들까지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동창 작가 총 132명이 참여하여 글로벌하게 전시를 진행하였다.

조소과

회장 __ 오주연(90)

이화조각회 온라인 릴레이 전시

2023년 9월 14일(목) 열린 총동창회 대바자회에서 조소과 동창회는 가죽공예(오주연(90)·윤영(90) 동창), 금속 공예품 및 작품 액세서리(이주연(00)·차경화(00) 동창)와 꽃담게장(이미자(90) 동창) 그리고 비건 샌드위치(우민주(20) 동창)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2023년도 이화조각회 온라인 릴레이 전시 part2가 유튜브 채널 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를 통해 10월 16일(월)부터 개최되었다. 회원 작가의 영상 전시는 매주 업로드 되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바자회에 참여한 조소과 동창들



섬유예술과

회장 __ 이상영(94)

회장단 회의 열고 예미전 준비

2023년 9월 14일(목) 섬예과 동창회 임원진들은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참가하여 의류, 가방, 화장품의 기성품들과 직접 만든 쿠션 커버, 키링, 헤어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다. 10월 23일(월) 한우리에서 예미회 제3차 회장단 회의가 열려 오복환(66)·김혜순(66)·윤귀영(71)·장영란(77)·박정례(79)·봉지희(85)·이상미(88)·전영선(88)·이상영 동창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동창회 바자회 활동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2024년 예미전 준비로 갤러리 대관을 결정하였다. 또한 현대 자수의 위상을 대외에 더욱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전시 그룹을 만들고, 전시 기획을 하였다. 한편 '이화인의 밤'과 녹미 합창단 후원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녹미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전임 예미회장인 봉지희·전영선 동창이 '이화인의 밤' 축하 무대에 서게 되어 격려하는 의미였다.

11월 27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화인의 밤'에 전·현직 예미회 회장 8명이 참석하였다. 예미회 회장단이 후배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깊은 이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대바자회 행사에 참여한 예미회 임원들



무용과

회장 __ 한명옥(79)

친선 골프 대회로 친목과 화합 다져

2023년 10월 23일(일) 포천 참밸리 컨트리CC에서 동창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2023 무용과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무용과 7기(1973년 졸업)부터 43기(2009년 졸업)까지 폭넓은 세대의 동창들 31명(8조)이 참가했으며, 우승,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베스트 포즈상, 골프사랑 기수상 등 11개 부문의 상이 상금과 함께 시상되었다. 무용과 동창회는 골프분과위원회를 두고 매년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한 무용과 동창들

융합보건학과

회장 __ 이계온(87)

융합보건학과 창립 60주년 기념식

2023년 10월 21일(토) 11시 ECC 이삼봉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1963년 창립 이래 국내 보건 교육과 보건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주도해 온 60년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융합보건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 동창과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융합보건학과 동창들

석했다.

장연희(89) 동창회 부회장의 찬송으로 시작하여 안선희 교목실장이 감사예배를 하였다. 이계온 회장의 개회사와 김은미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김혜경(87)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의 환영사와 안정훈 학과장의 학과 연혁 및 교수 소개가 진행됐다.

김명(74) 명예교수가 많은 변화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융합보건학과의 역사를 공유했고, 이어서 지난 2021년 5급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던 최한슬(21) 동창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화보건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융합보건학과 재학생들을 대표해 황유라(21학번)·조윤수(21학번) 학생이 학과활동 및 학생활동을 소개하며 선후배 간 소통과 이해를 돋는 시간을 가졌다.

융합보건학과 1대 동창회장 김정연(69) 동창은 60년 학과의 역사를 추억하며 기뻐했고, 역대 동창회장 10명의 인사가 이어졌다. 학과 60주년을 자축하는 축하 무대도 꾸며졌다. 김지민(13)·이지영(21) 동창의 노래, 중앙댄스동아리 액션의 댄스 무대로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식사 및 대화의 시간을 끝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한 융합보건학과 동창 100여 명은 이화에서 함께한 소중한 경험이 각자의 삶에 큰 가치를 주었음을 확인했다.

지회 소식

대전 지회

회장 __ 황순자(교육 69)

보원요와 화담숲 나들이

2023년 9월 18일(수) 동창 13명이 곤지암에 있는 보원요와 화담숲으로 나들이했다. 보원요는 김기철 도예가가 40여 년간 일구어 온 전통 용가마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이다. 동창들은 자연을 모티브로 빚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와 담소를 나누었다. 도예가의 아내인 조남숙(교육 59, 이화교육네트워크 고문) 동창은 따스한 마음으로 친하게 우린 대추차와 차가 담긴 보원 백자 잔을 선물로 주었다.

보원요 탐방에 앞서 도예가의 저서 『작은 그릇



보원요에서 차를 즐기고 있는 대전 지회 동창들

안에 담긴 우주』를 구입하여 사전 공부를 한 터라 오랜 지인인 듯 친밀한 분위기가 되어, 류백란(피아노 67) 동창의 반주에 따라 ‘고향의 봄’도 부르고 작가의 애창곡도 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채원(도예 93) 동창은 “상상력과 영감을 충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동창들은 이곳이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풍전등화의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화담숲으로 향했다.

대전 지회는 대전이화코러스 활동도 활발하다. 매주 목요일 30여 명의 단원들이 모여 합창하는 한편, 회비를 쪼개어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다섯 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말에는 자체 합창제를 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창단 20주년 기념 해외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이화클럽(자이클)도 있는데 한글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창들의 상호 교류의 장이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 __ 최혜영(생미 86)

보자기 작품 기증식에 참석

2023년 9월 24일(일) 세인트루이스 아트뮤지엄에서 열린 한국 보자기 작품 기증식에 참석하고,

세인트루이스 아트뮤지엄에서 동창들과 이영민 강사(가운데)



이영민(디대원 96) 동창을 축하하였다. 10월 12일(목) 제80회 정기 모임에서는, 1997년에 제정한 회칙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였고, 11월 전선미 모임에서는 양혜자(교육 74) 동창이 동창회 회계 업무를 자원하여 맡기로 하여 모두 기뻐하였다. 한편 동창들의 호응 속에 북클럽이 지속되고 있다.

가득한 밤하늘을 우리 앞에 펼쳐 준 박나애(성악 10) 동창과 김윤정(피아노 06) 동창의 피아노 반주에 이어 최지영(관현 00) 동창의 연주로 마무리되었다. 양코르 무대로 오혜리(피아노 05) 동창의 반주로 장의정·박나애 동창이 <그리운 금강산>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불렀고, 최미나 회장의 끝인사와 함께 음악회를 마쳤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최미나(관현 00)

워싱턴 한인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

2023년 10월 14일(토)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임원들이 손수 준비한 초대장을 동창회원 모두에게 보내어, 모교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대학 인가를 받은 1945년에 입학하여 첫 졸업생이 된 김복희(성악 49) 동창부터 2022년에 졸업한 동창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기념비적인 시간이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허혜온(관현 94)·이상명(커미부 02) 문화부장의 노련한 사회로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다. 김정연(종음 05) 동창의 오르간 연주로 시작된 연주회는 낭만적인 시와 선율의 조화를 들려준 장의정(성악 06) 동창, 이대 동창인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한 최성희 씨, 별이

음악회를 마친 후 김복희 동창과 함께한 워싱턴DC 동창들



이탈리아 지회

회장__김정임(대학원 88)

갓 오픈한 빌라 '토지'에서 동창회 모임

2023년 10월 20일(금) 로마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빌라 '토지(Tozi)'에서 만남을 가졌다. 빌라 '토지'는 김미란(철학 88) 동창이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오던 리조트 프로젝트인데, 2019년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마침내 오픈하게 되었다. 빌라의 이름은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토지』에서 따온 것이다. 마치 동화나라 같이 꾸며진 공간들을 돌아보면서 동창들은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유실수가 심어진 1만 평 규모의 정원을 바라보며 둘러앉아 맛있는 점심을 나누었다. 식사 후 2023년 회계 보고와 행사 보고를 마치고, 동창들을 초대하고 정성스러운 식사까지 준비한 김

빌라 '토지'에서 점심 식사를 나누는 이탈리아 지회 동창들



미란 동창에게 작은 축하 선물을 증정하였다.

2024년부터는 박창성(식영 71) 동창이 회장이 되어 동창회를 이끌어 주기로 하였다. 그간 수고한 김정임 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인천 지회

회장 __ 김자영(교육 82)

임시 총회 개최하고 회칙 개정

2023년 10월 23일(월) 경복궁 구월점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16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개정 및 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하였고, 월례회 연간 횟수 및 연회비 관련 논의를 하였다.

인천 지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회칙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행사 진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해 의논하여 인천 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임원단에 더하여 박명희(불문 86) 동창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임시 총회를 개최한 인천 지회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이익범(국문 85)

레스토랑에서 화기애애한 모임

2023년 9월 11일(월), Jl. Gunawarman의 Le

Quartier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다. 총 6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담소를 나누고, 2023년 연말 송년 모임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한편 오랫동안 자카르타 지회와 함께한 강혜경(간호 77) 동창이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제주 지회

회장 __ 고화련(독문 69)

버스 타고 제주 한 바퀴

2023년 10월 25일(수)에 '버스 타고 제주 한 바퀴'란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앞에서 모인 현애월(화학 58) 외 16명의 동창은 이운희(불어교육 77) 목사의 안전 여행을 위한 기도 후 출발하였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신창리 풍력발전 단지. 2006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 개발 사업이 시행된 곳이라는 한선애(사회 80) 동창의 설명을 들으면서 해상다리를 지나 등대까지 텁방을 하였다. 물고기 동상을 보고 바로 다금바리라고 알아보는 홍정자(영문 65) 동창의 말에 '제주 출신은 다르구나' 하며 감탄하였다. 두 번째 목적지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자연공원인 수월봉. 마그마 폭발로 형성된 해안 절벽을 보면서 한희경(사학 65) 동창이 놀고



가을 야유회에 참석한 제주 지회 동창들

와 수월 남매의 전설을 들려 주었다.

중문에서 점심식사 후, 강정항으로 이동하여 차를 마시는 시간에 이은희(약학 72) 동창이 2024년도 유화 달력을 선물해 주었다. 다음 행선지는 천지연 폭포. 폭포로 가는 동안 신경인(교공 75) 동창으로부터 폭포까지 가는 풍경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고순현(제약 71) 동창의 멋진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버스타고 제주 한 바퀴’는 시간 관계상 반 바퀴(서쪽에서 남쪽까지) 일정이었지만, 다음 기회에 동쪽에서 남쪽까지 진행하면 완전한 제주 한 바퀴가 될 수 있다는 고화련 회장의 끝인사와 교가 제창으로 야유회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__ 김수연(물리 86)

횃불회와 연말 파티

2023년 9월 23일(토)에 최인숙(영교 74) 횃불회 부장의 집에서 횃불회 예배 모임을 가졌다. 이화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후 예배를 드렸다. 윤혜자(영교 79) 동창의 기도, 화관회 동호회의 찬양과 김성란(기독 95) 목사의 ‘그리스도의 현존’이란

설교 말씀을 나누었다. 2부 순서로는 조혜령(성악 96) 동창의 ‘즐거운 노래, 올바른 발성법’이란 주제로 찬송가와 가요를 부르는 순서를 가졌다.

10월에는 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토론토 지회를 대표해서 7명의 동창과 2명의 사위가 참석했고, 텔런트쇼에서 ‘범 내려온다’로 감독상을 받았다. 11월 12일(일)에는 유인희(체육 56) 동창의 구순 축하와 한국무용에 공헌하였을 감사드리는 ‘한국무용가 유인희 현정 무대’가 토론토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11월 19일(일)에는 ‘인생은 영화처럼’이라는 주제로 연말 파티를 가졌다. 108명의 동창과 이화 사위, 가족이 모인 가운데 1부 총회, 2부 동호회 공연 및 싱어롱, 3부 게임과 포크댄스 시간이 있었다. 동창들은 영화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의상으로 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연말 파티에 참석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파리 지회

회장__ 박현선(의직 91)

대선배들과 함께한 추석 모임

2023년 9월 21일(목) 파리 15구의 이도식당에서 추석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번 추석 모임에는 이충석(심리 56)·민경화(국문 62)·이병주(불문 62)·이



추석 모임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종란(약학 71)·변정원(불어교육 73)·윤영순(교공 73)·장옥희(심리 73)·송미영(불문 76)·박경애(불어 교육 76)·함미연(불문 81)·홍성부(생미 84)·윤애영(서양 88)·한연미(정외 90) 동창과 현 임원단 박현 선·박세연(서양 94)·안정아(건축 06)·김윤정(국제 학부 07)·임재리(정외 12) 동창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풍성한 한식 및 송편과 함께 고향의 따뜻함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오성실(영문 68)

이화 사위까지 참석한 10월 모임

2023년 10월 7일(토) 이화 사위까지 모두 19명이 동창회 모임을 하였다. 조경숙(의학 81) 동창의 프랑스 남부 지방 여행 경험담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왼쪽부터 오성실·유옥자(약학 62)·이문자(가정 66) 동창

Lavender field 사진을 보여 주며 설명할 때는 보랏빛 물결의 향기가 우리들을 감싸는 듯했다. 동창들 모두 잘 준비된 가이드 따라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는 3명의 동창이 참석하였고, 이화인의 단합과 함께 다양함을 동시에 느낀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편 남광희(의직 73) 동창이 Virginia의 딸 곁으로 이사 갔고, 권태주(성악 58) 동창이 11월 21일(화)에 소천하였다.

호치민 지회

회장__이인혜(식영 97)

1주년을 맞이한 '이화 골프' 모임

2020년 9월 호치민 지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이후 여러 동아리들이 결성되어 동창들의 친목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이화 골프'인데 2022년 11월 처음 결성되었으며, 이화의 이름에 착안하여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현재 17명의 동창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거나 필드 경험이 많지 않은 동창들도 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



골프 모임에 참석한 호치민 지회 동창들

홍콩 지회

회장__한유미(융합보건 90)

김은미 모교 총장과 오찬

2023년 6월 초 홍콩 지회는 뜻밖의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김은미 모교 총장이 출장 중에 동창들과의 만남을 위해 홍콩에 잠시 들른다는 전갈이었다. 6월 15일(목) 한유미 회장의 초청으로 홍콩섬 남부에 위치한 에버딘 마리나 클럽에서 조출한 만남을 가졌고, 6월 17일(토) 홍콩 지회 초대 회장인 방혜자(교육 66) 동창이 홍콩 컨트리클럽에서 오찬을 베풀어, 더 많은 동창들이 김은미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홍콩 지회 동창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화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4,150여 만 원을 모금하여 모교발전기금으로 송금하였다.



김은미 총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홍콩 지회 동창들

동 창 근 황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고(故) 문은선(약학 49) 동창

2023년 11월 23일(목) 고(故) 문은선 동창의 유족이 모교에 '약대건축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고(故) 문은선 동창은 1945년 설립된 이화여대 행림원 약학과 1회 졸업생으로 지난 6월 작고했다.



유인희 동창

유인희(체육 56) 동창

2023년 11월 12일(일) 토론토 노스 욕 메르디앙 아트센터에서 '한국무용가 유인희 현정 무대'가 열렸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한국무용과 사회봉사에 힘써온 유 동창의 공헌에 감사하며 기획한 현정 무대였다.

이충선(약학 56) 동창

한아장학재단 이사장 이충선 동창이 2023년 10월 13일(금) 모교에 'EGPP 한아장학재단 장학금' 8만 달

러(약 1억 841만 원)를 기부했다.

황수로(수학 58) 동창

2023년 10월 27일(금) 열린 '2023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황수로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장이다.



김태련 동창

김태련(심리 60) 동창

아이코리아 이사장 김태련 동창이 2023년 11월 1일(수)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다.



송창주 동창

송창주(가정 62) 동창

이준열사기념관장 송창주 동창이 2023년 11월 7일(화) 주혜이그 한국대사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였다.

이영희(사회 62) 동창

2023년 11월 1일(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영희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이며, 2022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개인 토지를 기부했다.



이영희 동창

장혜원(기악 62) 동창

피아니스트 장혜원 동창이 2023년 12월 10일(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자신의 음악 인생을 담은 '피아노와의 삶 80주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혜원 동창

최영희(간호 62) 동창

전 국회의원 최영희 동창이 2023년 11월 9일(목)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헌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최영희 동창

김매자(체육 66) 동창

창무예술원 원장 김매자 동창이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봄, 언땅의 밭을 딛고'를 공연했다. 이 공연에는 이노연(무용 78)·최은희(무용 78)·이애현(무용 82)·이미영(무용 86)·최지연(무용 88) 동창이 출연했다.



김매자 동창



김현자 동창

김현자(국문 66) 동창

문학평론가이자 모교 명예교수인 김현자 동창이 시 읽기의 통로를

안내하는 책 『시여, 내 손을 잡아줘』(이화여자대학 교출판문화원)를 출간하였다. 한국의 현대 명시 30 편을 골라 시 감상법을 안내하였다.

이정자(조소 66) 동창

2023년 10월 8일(일)부터 11월 30일(목)까지 우모하갤러리에서 개인 전을 개최했다.



이정자 동창

오유순(강유순, 약학 69) 동창

2023년 10월 5일(목)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벤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 오유순 동창이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유순 동창

김화숙(무용 71) 동창

2023년 12월 8일(금)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무용인의 밤' 행사에서 원광대 명예교수인 김화숙 동창이 '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을 수상하였다.

박재희(무용 72) 동창

2023년 10월 22일(일)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박재희 공개행사(예술감독 박재희)를 개최하였다.



임학선 동창

임학선(무용 73) 동창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임 동창이 무용교본 『호흡표기법으로 배우는 태극구조기본춤』을 출간하고, 2023년 11월 25일(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1월 26일(일)에 <기본춤 100년을 돌아보다> 공연을, 28일(화)과 30일(목)에 <함께한 사람들—오늘의 춤은 오늘다워야> 공연을 서울 방배동 두리춤터에서 개최했다.

김영순(무용 74) 동창

뉴욕에서 활동 중인 안무가 김영순 동창이 '베시 어

워드' 에인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3년 10월 11일(수) 뉴욕 링컨센터에 위치한 뉴욕 공립 도서관 공연예술부에서 개최되었다.

배경화(화학 74) 동창

민속주 안동소주 대표 배경화 동창이 2023년 10월 23일(월) 개최된 '2023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

양정수(무용 75) 동창

양정수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는 2023년 10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총 이틀간 한강공원 세빛섬·예빛섬 야외무대에서 '2023 K-WAVE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양정수 동창

정의숙(무용 75) 동창

2023년 11월 2일(목)부터 5일(일)까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트나인에서 제7회 '서울무용영화제(Seoul Dance Film Festival)'를 개최하고, 40편의 댄스 필름을 선보였다.



정의숙 동창

박혜영(약학 76) 동창

지난 2021년 12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추계 학술대회의 '약학사 분과회'에서 박혜영 동창이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혜영 동창

이미연(동양 76) 동창

2023년 11월 3일(금)부터 15일(수) 까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이미연 동창이 '빛 가운데서'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이미연 동창

장영란(섬유 77) 동창

2023년 9월 1일(금)부터 10월 15일(일)까지 제13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사물의 지도' 초대기획전에 초대 작가로 선정되어 45일간 청주시 문화재조창 본 전시관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11월 4일(토)부터 열흘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사)한국공예가협회(이사장 장영란) 창립 50주년 특별기획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장영란 동창

김영옥(교육 78) 동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영옥 동창이 영유아교육 전문매거진 『월간유아』가 선정한 월간유아교육상을 수상했다. 김영옥 동창은 전남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이다.



김영옥 동창

김성은(커미부 79) 동창

김성은 동창이 한국전력공사 감사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성은 동창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전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김성은 동창

윤성주(무용 79) 동창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인 윤성주 동창이 2023년 9월 13일(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야훈데어트할레(Jahrhunderthalle Frankfurt) 극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해외 브랜드공연 <춤, 풍경>을 1,900석 극장을 매진시키며 성료했다.



윤성주 동창

이윤경(도예 79) 동창

이윤경 동창이 『흙으로 빛은 순박함, 우리 옹기』를

출간하였다. 모교의 명예교수이자 한국 현대 도예를 이끈 1세대 도예가인 조정현 작가에 대한 네 번째 책이다.



이윤경 동창

김성희(동양 81) 동창

김성희 동창이 2023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으로 취임했다. 김성희 동창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사단법인 캠퍼운데이션 상임이사이다.



김성희 동창

박혜원(국문 81) 동창

박혜원 동창의 단편소설 「작품비」가 경남문인협회 선정 올해의 장르별 우수작품상 소설부문에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3년 10월 7일(토)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박혜원 동창

신미혜(교공 81) 동창

사진작가 신미혜 동창이 2023년 8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수)까지 환기미술관에서 'K-거리정물'이란 주제로 개인사진전을 가졌다.



신미혜 동창

양영선(교공 81) 동창

2023년 12월 2일(토) 서울시 서초구 소재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제12회 영음회 정기 연주회에서 공연하였다.



양영선 동창

이현숙(사학 81) 동창

한국 고대사를 전공한 이현숙 동창이 2023년 11월 11일(토) 한국생태환경사 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에서 「신보살경과 권선경으로 본 당 고종대 질병과 인구」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양옥경(영문 82) 동창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양옥경 동창이 2023년 11월 21일(화) 성남시 ESG 정책자문단 자문단장에 위촉되었다.



손정미 동창

손정미(사회과교육 83) 동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획조정실 글로벌협력관으로 재직 중인 손정미 동창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규 상임이사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양현혜(기독 83)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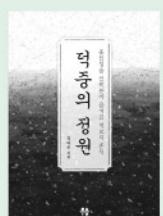
모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양 동창이 2023년 11월 18일(토) 모교에서 열린 제8회 김교신선생기념학술대회에서 제1회 김교신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염선행 동창

염선행(생미 83) 동창

2023년 10월 13일(금)부터 11월 11일(토)까지 울트라블루갤러리에서 개인전 'My Flowers'를 가졌다.



김다은 동창

김다은(불어교육 84) 동창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다은 동창이 장편소설 「덕중의 정원」(무블)을 출간하였다. 전작 『훈민정음의 비밀』에 이은 한글 2부작이다.

유경하(의학 84) 동창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동창이 '제3회 동아병원경영 대상' CEO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종진 동창

이종진(조소 84) 동창

2023년 9월 12일(화)부터 10월 29일(일)까지 'The Sound of Color'라는 주제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생활지음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

최했다.

김연숙(서양 85) 동창

2023년 11월 4일(토)부터 11일(토)까지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돌담갤러리에서 개인전 '여기, 한라산'을 가지고 한라산을 테마로 한 회화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였다.

김용복(무용 85) 동창

경북도립무용단의 상임안무자 김용복 동창은 2023년 10월 5일(목)에 경북도립무용단 명인초정공연 '수수지무(授受之舞)'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또한 11월 10일(목)에는 경북도립무용단 제13회 정기공연 '빛 그늘'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공연했다.



김용복 동창

서지희(경영 85) 동창

2023년 8월 1일(화) 이화여대 기술지주회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서 동창은 삼정KPMG 부대표로 승진하여 여성 최초 임원의 기록을 세웠으며, (사)위민인이노베이션(WIN)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서지희 동창

정경미(서양 85) 동창

강화도 해안남로에 위치한 명때림채플에 정경미 동창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12점을 설치하였다. 명때림채플은 2023년도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정경미 동창

최유미(생미 85)·유현정(생미 91) 동창

최유미·유현정 동창이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3회의 공연 및 전시를 기획 제작하였다.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11월 9일(목)에 창작음악극 <사랑이라는 기억의 조각>을,

12월 21일(목)에 응복합 미디어 공연 <희망의 춤>을 진행하였다. 또한 12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더 케이브> 전시



최유미 동창 유현정 동창

장에서 <호두까기>를 각색하고 3D를 포함한 확장현실(XR) 작품을 선보였다.

김지선(서양 86) 동창

김지선 동창은 2023년 10월 18일(수)부터 23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10월 25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고양시 소재 갤러리 아트월에서 전시를 가졌다. 갤러리 아트월 운영과 CSR(사회기여) 일환으로 봄햇살 청년발달장애미술그룹을 운영하며 고양시 어울림미술관에서 8월에 정기전을 기획·전시하였으며 매년 청년발달장애인 전시회를 개최·후원하고 있다.



김지선 동창

박영주(서양 86) 동창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27일(월)까지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하였다. 박 동창의 작품은 365 ART SPACE에서 상시 관람할 수 있다.



박영주 동창

김문정(피아노 87, 이하 모두 피아노과)·김진우(88)·연성혜(88)·김정아(89)·이화정(90)·임연실(98)·오혜림(08) 동창

2023년 11월 7일(화) 영산아트홀에서 재능기부협회 시각장애인 후원 음악회로 열린 바흐 피아노 콘체르트 연주회에 출연하였다.

김정수(사복 87) 동창

삼양식품 부회장 김정수 동창이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지주사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김 동창은 2017

년 삼양식품 총괄사장에 이어 2021년부터 ESG 위원장 및 해외영업본부장을 맡아왔다.

박종애(물리 87) 동창

한국연구재단 ICT·융합연구단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박종애 동창은 2000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해 그룹장과 상무를 지냈으며 2022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었다.



박종애 동창

송규희(융합보건 87) 동창

선교사인 송규희 동창은 인도네시아 중부 Jawa에서 2002년 8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캠퍼스 사역, 장애우 복지사역, 초등학교 보건교육, 현지 교회와 협력 사역 등의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송규희 동창

송릿다(제약 87) 동창

송릿다 동창이 팜젠사이언스의 '글로벌R&D센터'의 센터장으로 영입되었다. 송릿다 동창은 1996년부터 28년간 신약개발업에 종사한 전문가이다.

우숙영(피아노 87, 이하 모두 피아노과)·문주원(88)·이화정(90)·김현경(94)·황지수(97) 동창

2023년 11월 25일(토)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클래식악상을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에 출연했다.

함영이(정외 87) 동창

함영이 동창이 신임 한국여성수련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함영이 동창은 우먼타임즈 편집국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BK연금보험 상무보 등을 역임하였다.



함영이 동창

현석경(간호 87) 동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현석경 동창이 2023년 11월 23일(목) 서울 장충체육관과 장충교회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윤선흥(동양 88) 동창

2023년 11월 24일(금)부터 12월 13일(수)까지 안양시 소재 두나무 아트큐브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나지막이 속삭이다(Low Whisper)'를 가졌다.



윤선흥 동창

이상미(섬예 88) 동창

2023년 11월 8일(수)부터 14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그림손에서 '민자, 브알라' 개인전을 열었다.



이상미 동창

이신화(영문 88) 동창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인 이신화 동창이 2023년 11월 7일(화)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2층 대강당에서 워싱턴 지역 한인들과 만남을 갖고 한인 사회와 북한인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혜경(정외 88) 동창

2023년 11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고양시 삼송에코락갤러리에서 열린 '2023년 사기장 백파선 현대와 만나다'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재숙(도예 86)·이상미(섬예 88)·이돈아(교공 91) 동창도 참여하였다.

박서영(피아노 89) 동창

2023년 10월 28일(토) 꿈의 숲 아트센터콘서트홀에서 이츠앤파이프 SSP 제1회 정기연주회에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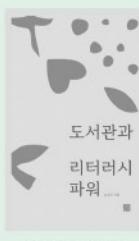
송경진(문정 89) 동창

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동창이 『도서관과 리

터러시 파워』(정은문고)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이경화(유교 89) 동창

조지아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경화 동창이 2023년 11월 1일(수) 조지아대학교 석좌교수에 임명되었다. 조지아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동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석좌교수이다.



이경화 동창

정순둘(사복 89) 동창

모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정순둘 동창이 2023년 10월 20일(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김수진(서양 90) 동창

2023년 7월 27일(목)부터 9월 10일(일)까지 세브란스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풀명’을 가졌다.



김수진 동창

이귀란(피아노 90) 동창

2023년 11월 10일(금)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2023 이스트만 플레이어즈’에서 연주하였다. ‘이스트만 플레이어즈’는 이스트만 음악대학 동문 음악회이다.

이화정(피아노 90) 동창

2023년 11월 21일(화)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제 17회 한국교수협의회 정기연주회에 이화정 동창이 출연하였다.



김지혜 동창

김지혜(도예 91) 동창

도예가 김지혜 동창이 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시 개인작가 부문에 선정되어 2023년 11월 15일

(수)부터 20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소재 KCDF갤러리 1전시장에서 ‘점토로 글쓰기: 사랑의 서신’ 개인전을 가졌다.

차안자(조소 91) 동창

2023년 10월 23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아름드리 계절의 창(窓)을 열다’라는 주제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문화공간 스페이스다온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배윤성(행정 92) 동창

배윤성 동창이 에세이집 『결혼들은 왜 이럴까』(글로서기)를 발간하였다. 3장으로 구성된 에세이집에는 31편의 자전적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배윤성 동창

정혜경(의학 92) 동창

최근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소화관운동학회(ANMA 2023)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정혜경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다.

김정아(동양 93) 동창

2023년 10월 5일(목)부터 22일(일)까지 광진구 워커힐호텔앤리조트 소재 빛의 라운지에서 개인전 ‘시간의 꽃 2ème’을 가졌다.



김정아 동창

백진(도예 93) 동창

백진 동창의 작품 〈NeuMe〉가 2023 정부미술은행 공모에 선정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에 소장되었다.



백진 동창

오수경(서양 94) 동창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충장22갤러리에서 ‘필그림(Pilgrim)-순례자’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윤하나(의학 94) 동창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윤하나 동창이 2023년 10월 7일(토) 열린 '2023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하반기 대회 시니어 부문에 4위로 입상했다.



윤하나 동창

채수정(한음 94) 동창

2023년 11월 7일(화)부터 8일(수)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제2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60명의 국내외 소리꾼들과 20명의 고수로 무려 20시간 릴레이 공연을 벌였다. 채수정 동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판 소리협회 이사장이다.

황지아(생미 95) 동창

황지아 동창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모멘텀'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전통 문양 산업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인 디자인 전시에 참여하였다. 또 한 2023년 10월 17일(화)부터 한 달



황지아 동창

간 인천공항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전시하였다.

박지영(수교 96) 동창

2023년 11월 1일(수)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박지영 동창은 교육기회보장과장,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이영민 동창

이영민(디대원 96) 동창

이영민 동창이 지난 여름 세인트루이스 게이트웨이코리아재단 초청으로 '공동 보자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023년 9월 24일(토)부터 10일 1일(일)까지 세인트루이스 아트뮤지엄, 10월 8일

(일)부터 13일(금)까지 콜롬비아 공립 도서관, 10월 16일(월)에서 18일(수)까지 미주리대학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또한 10월 20일(금)부터 12월 31일(일)까지 트루먼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전시했다.

이지은(사학 96) 동창

이지은 동창이 2023년 9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지은 동창

이혜원(섬예 96) 동창

2023년 11월 15일(수)부터 21일(화)까지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도스 제1 전시관에서 기획전으로 '이야기의 향연' 전을 열었다.



이혜원 동창

이희경(조소 96)·박은선(조소 98)·오수연(조소 98)·이지향(조소 98)·강선구(조소 99)·안경하(조소 99)·조수연(조소 99)·차경화(조소 00) 동창

2023년 10월 17일(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HORM Gallery에서 '미-끄덩한 것은 ()해'라는 주제로 조각그룹 비의 전시회를 가졌다.

홍선기(생미 96) 동창

2023년 9월 Carnegie Mellon 디자인 대학의 전공교수로 부임하였다. 홍선기 동창은 제품디자인과 가구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홍선기 동창

유이화(장미 97) 동창

ITM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이화 동창이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제주시에 위치한 유동룡미술관은 유이화 동창이 설계하고 건축한 '이타미 준 세계의 완성체'로 꼽힌다.



유이화 동창

이말용(조소 98) 동창

2023년 10월 28일(토)부터 11월 15일(수)까지 '연결_짓다'라는 주제로 갤러리마주안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말용 동창

이승아(서양 98) 동창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전시프로그램 총괄기획자로 수석큐레이터 이승아 동창이 위촉되었다.

임연실(피아노 98) 동창

임연실 동창이 12월 1일(금)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는 임연실 동창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이다.



임연실 동창

조연경(섬예 99) 동창

2023년 11월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마포구 소재 갤러리 필로에서 '텍스타일을 위한 오브제' 전을 가졌다.



조연경 동창

윤진숙(동양 00) 동창

2023년 11월 2일(목)부터 14일(화)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갤러리 밀스튜디오에서 '비추이다(Reflect)' 초대전을 가졌다.



윤진숙 동창

윤정희(장미 01) 동창

2023년 9월 7일(목)부터 10월 21일(토)까지 서울 비트리갤러리에서 개인전 '면의 리듬'을 갖고, 구리로 이루어진 동선(Copper Wire)으로 고리(Loop)를 만들어 그 위에 실을 덧입히는 방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지선(유교 01) 동창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동창이 2023년 11월 7일

(화) 서울시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장해림(섬예 02) 동창

2023년 10월 19일(목)부터 25일(수)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갤러리 필로에서 'Seaforest' 전을 열었다.



장해림 동창

김주희(사회 04) 동창

2023년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지식융합대학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주희 동창은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주희 동창

이수련(영문 04) 동창

에세이집 『청와대를 떠난 배우』(북오선)를 출간했다. 이수련 동창은 대한민국 여성 1호 대통령 경호관 출신으로, 현재는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이수련 동창

홍인혜(심리 04) 동창

전세 사기 경험담을 그린 만화책 『루나의 전세역전』을 출간했다. 웹툰 작가인 홍인혜 동창은 '루나파크', '루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경은 동창

한경은(의학 05) 동창

2023년 11월 23일(목) 제130회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태준최다 피인용 KJO 논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구보람(경영 06) 동창

2023년 11월 29일(수)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대학신문 대학직원대상 시상식에서 장학학생지도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구보람 동창은 모교 학생처 장학복지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연아(섬예 07) 동창

2023년 12월 5일(화) 필립스 옥션 한국 사무소 대표로 임명되었다. 임연아 동창은 서울과 뉴욕의 미술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김보화(대학원 11) 동창

2023년 11월 28일(화) 개최된 '제4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식에서 김보화 동창의 저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이 학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김 동창은 젠더 폭력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보화 동창

서인혜(동양 12) 동창

강릉시가 주최하고 (사)대추무파인아트가 주관하는 2023 내일의 작가상에 서인혜 동창이 선정되었다. 선정작가 전시는 강릉에 위치한 대추무파인아트에서 2023년 10월 13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열렸다.

안정신(의전원 12) 동창

2023년 9월 23일(토)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탁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안정신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응합의학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안지아(생미 12) 동창

안지아 동창이 『What is UX? 대학생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살펴보기』(주식회사 도쉼)를 출간했다. 또한 2023년 11월 5일(일)부터 26일(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열린 미술인선교회 정기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하였다.



안지아 동창

윤 랑(섬예 13) 동창

2023년 10월 14일(토)부터 29일(일)까지 서울시 종

로구 계동에 있는 다봉 갤러리카페에서 사진전 'Spielraum' 전을 열었다. 전시의 수익금 일부는 기부하였다.



윤 랑 동창

김다슬(조소 15) 동창

2023년 11월 18일(토)부터 25일(토) 까지 '남작한 입체의 사원'이라는 주제로 오시선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다슬 동창

류지민(동양 16) 동창

2023년 11월 22일(수)부터 12월 3일(일)까지 성북구 소재 갤러리 유영 공간에서 개인전 '웃어 넘기고 싶은 마음 : Smile to let go' 을 가졌다.



류지민 동창

허 별(조소 16) 동창

2023년 11월 11일(토)부터 19일(일) 까지 '도시의 구석'이라는 주제로 중간지점 하나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허 별 동창

최윤형(의전원 17) 동창

2023년 11월 11일(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에서 「의사가 직업인 환자」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최윤형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최윤형 동창

김진선(조소 19) 동창

2023년 11월 9일(목)부터 26일(일) 까지 'Thread of Coexistence'라는 주제로 COSO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진선 동창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22.12.29~2023.12.19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윤경(97) 1,000,000	진현경(93) 3,000,000	장연희(87) 1,000,000	윤수진(73) 5,000,000
국어국문학과	전방자(64) 5,000,000	생명과학과	장식미술과	김선희(93) 3,000,000	조혜숙(76) 1,000,000
이재민(73) 5,000,000	김향신(66) 5,000,000	김성옥(72) 5,000,000	고동연(93) 3,000,000	과학교육과	임경희(80) 1,000,000
정미정(89) 1,000,000	정소영(91) 1,000,000	김용연(87) 1,000,000	도예과	유경희(83) 1,000,000	오진아(93) 3,000,000
중어중문학과	이효경(93) 3,000,000	박미향(89) 1,000,000	한향령(79) 1,000,000	신혜란(93) 3,000,000	
안영호(85) 1,000,000	사회학과		장정은(93) 3,000,000	수학교육과	
김정아(93) 3,000,000	이소영(65) 5,000,000	공과대학		신경희(77) 1,000,000	약학대학
영어영문학과	문명재(77) 1,000,000	컴퓨터공학과	체육대학	김순정(62) 1,000,000	약학과
이경숙(70) 1,000,000	박순원(77) 1,000,000	김정아(85) 1,000,000	체육학과	김봉희(73) 5,000,000	
김영숙(73) 5,000,000	서동선(77) 1,000,000	장선영(89) 1,000,000	법대·법전원	김용재(82) 1,000,000	
김혜숙(76) 1,000,000	김은미(81) 1,000,000	이정원(93) 3,000,000	법학과	남혜숙(82) 1,000,000	
이정숙(77) 1,000,000	이재완(84) 1,000,000		안경희(86) 1,000,000	박병희(84) 1,000,000	
김진선(78) 1,000,000	서혜진(93) 3,000,000	음악대학	운석희(87) 1,000,000	이경희(88) 1,000,000	
박영주(78) 1,000,000	사회복지학과	임학선(73) 5,000,000	박상혜(88) 1,000,000	김희성(93) 3,000,000	
홍성미(78) 1,000,000	이화수(77) 1,000,000	정소영(62) 1,000,000	노정연(90) 1,000,000	박정신(93) 3,000,000	
방혜성(82) 1,000,000	조명희(77) 1,000,000	손경순(77) 1,000,000	조현지(91) 1,000,000	제약학과	
한유경(91) 1,000,000	김린아(93) 3,000,000	이명경(77) 2,000,000	김구슬(93) 1,000,000		
엄현진(93) 3,000,000	심리학과	전혜수(73) 5,000,000	한명옥(79) 1,000,000	신한미(93) 3,000,000	생활환경대학
불어불문학과	박광규(76) 1,000,000	이지희(93) 3,000,000	박영애(81) 1,000,000	천정아(04) 1,000,000	가정관리학과
송기정(80) 1,000,000	석영미(89) 1,000,000	김내리(93) 3,000,000	조미송(81) 1,000,000	조여원(73) 5,000,000	
배윤경(87) 1,000,000	이혜석(93) 3,000,000	성악과	전유오(84) 1,000,000	김상희(81) 1,000,000	의류직물학과
최내경(89) 1,000,000	자연과학대학	신난식(73) 5,000,000	우엘라(86) 1,000,000	권혜진(93) 3,000,000	식품영양학과
구은경(93) 3,000,000	수학과	정자영(93) 3,000,000	이미영(88) 1,000,000	박원옥(73) 6,522,500	
독어독문학과	김시영(83) 1,000,000	김우경(89) 1,000,000	김해련(84) 1,000,000	이은미(83) 1,000,000	
민용자(67) 5,000,000	김진미(83) 1,000,000	임 진(72) 1,000,000	배정아(93) 3,000,000	조미숙(83) 1,000,000	
유동신(74) 1,000,000	김경랑(84) 1,000,000	심현아(93) 3,000,000	손미정(93) 3,000,000	김판지(93) 3,000,000	
손희정(87) 1,000,000	김희선(87) 1,000,000	종교음악과	사범대학	이영희(73) 5,000,000	대학원
목승숙(91) 1,000,000	김윤선(93) 3,000,000	안윤수(87) 1,000,000	윤순희(65) 1,000,000	양혜련(93) 3,000,000	이화정(92) 1,000,000
송원자(93) 3,000,000	한국음악과	문 읔(87) 1,000,000	교육학과	임정애(73) 5,000,000	교육대학원
기독교학과	이정호(87) 1,000,000	양재희(80) 1,000,000	김영주(71) 1,000,000	오혜숙(78) 1,000,000	양수화(74) 1,000,000
강지나(93) 3,000,000	송종선(93) 3,000,000	곽은아(85) 1,000,000	박혜경(72) 5,000,000	김태경(84) 1,000,000	
사학과	통계학과	조형예술대학	진복례(87) 1,000,000	최진영(93) 3,000,000	정책과학대학원
양승희(73) 5,000,000	김혜주(93) 3,000,000	물리학과	유이교육과	김상순(84) 1,000,000	
유영희(74) 1,000,000	신승애(63) 5,000,000	한승연(83) 1,000,000	김영주(71) 1,000,000	피상순(84) 1,000,000	
주혜련(77) 1,000,000	남상택(74) 1,000,000	김지연(93) 3,000,000	권미경(87) 1,000,000	김성희(87) 1,000,000	신학대학원
최지영(89) 1,000,000	이희숙(86) 1,000,000	서양화과	정연경(91) 1,000,000	조지희(88) 1,000,000	송미경(18) 1,000,000
정혜중(91) 1,000,000	박종애(87) 1,000,000	백다임(86) 1,000,000	허정원(93) 3,000,000	조혜영(89) 1,000,000	
송미령(93) 3,000,000	최은영(87) 1,000,000	최은숙(87) 1,000,000	윤지숙(93) 3,000,000	박미혜(90) 1,000,000	
사회과학대학	박형재(93) 3,000,000	조소과	진복례(87) 1,000,000	한은주(79) 1,000,000	김예진(93) 3,000,000
정치외교학과	화학과	김정숙(71) 7,000,000	유이교육과	이경순(88) 1,000,000	김영순(73) 5,000,000
문하옥(85) 1,000,000	이종옥(73) 5,000,000	배윤자(93) 3,000,000	한은주(79) 1,000,000	윤금진(80) 1,000,000	
오유경(93) 3,000,000	최경희(80) 1,000,000	섬유예술과	이경순(88) 1,000,000	김영준(73) 5,000,000	
행정학과	황복기(88) 1,000,000	김미진(93) 3,000,000	홍정아(93) 3,000,000		
임복희(93) 3,000,000	윤영지(93) 3,000,000	생활미술과	영교육과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1~2023.12.19 (과·졸업년도 순)

인문과학대학	강진환(62) 351,624	유정자(65) 300,000	오원자(68) 300,000	송호연(69) 300,000	최숙희(73) 300,000
국어국문학과	박미해(64) 300,000	신효자(66) 300,000	임완숙(68) 300,000	유원화(69) 300,000	홍석진(73) 300,000
김성자(61) 300,000	안정환(65) 300,000	박영숙(67) 300,000	서경자(69) 300,000	박희규(71) 300,000	최경희(77) 300,000

하선아(85) 300,000	불어불문학과	사회과학대학	김정애(76) 300,000	컴퓨터공학과	김혜린(83) 300,000
이현주(88) 500,000	허영자(62) 3,500,000	정치외교학과	박랑규(76) 300,000	조호경(87) 500,000	박성희(86) 500,000
이승신(91) 300,000	남혜경(63) 300,000	한연숙(59) 300,000	강순원(80) 300,000	전자공학과	문연정(20) 500,000
심현정(92) 500,000	조규연(65) 300,000	구혜경(71) 300,000	한성엽(82) 300,000	서양화과	최구자(65) 300,000
탁유진(22) 500,000	김영희(66) 300,000	이문숙(79) 300,000	이현승(93) 500,000	환경공학과	전정희(73) 300,000
중어중문학과	임채분(67) 300,000	김미령(80) 300,000	장서희(01) 500,000	이효수(97) 500,000	김선희(75) 300,000
금지원(92) 500,000	안현주(68) 300,000	정민재(81) 300,000	김선영(09) 500,000	건축학과	권현진(03) 500,000
박수현(08) 500,000	이원옥(68) 300,000	임수영(91) 500,000	박민정(02) 500,000	조소과	이정수(03) 500,000
강운화(20) 500,000	임순영(70) 300,000	김우진(22) 500,000	심미혜(09) 500,000		
윤이지(23) 500,000	민혜경(71) 300,000	문화정보학과			
영어영문학과	강미영(72) 300,000	홍승진(65) 300,000			
김세영(50) 1,000,000	오인순(72) 300,000	박영숙(70) 300,000			
김순자(55) 300,000	이영숙(72) 300,000	지금련(72) 300,000			
강상봉(56) 500,000	장혜경(73) 300,000	윤소영(73) 300,000			
이인주(56) 300,000	신덕영(75) 300,000	노경석(75) 300,000			
김형숙(58) 300,000	김영혜(77) 300,000	이승하(16) 500,000			
전은경(59) 300,000	배혜화(77) 3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서진옥(61) 300,000	조정순(77) 300,000	장명수(64) 300,000			
정소영(62) 300,000	김지윤(79) 300,000	조영숙(64) 300,000			
김애란(63) 500,000	원종미(79) 300,000	변지숙(65) 300,000			
문영혜(63) 300,000	이규숙(81) 300,000	조애진(66) 300,000			
박인자(63) 300,000	어미화(82) 300,000	차경애(66) 300,000			
유영애(63) 300,000	조은실(85) 300,000	채명자(66) 300,000			
양정자(64) 300,000	김세정(22) 500,000	한영자(66) 300,000			
박명자(67) 300,000	독어독문학과	한명미(67) 300,000			
엄은옥(67) 300,000	민용자(67) 600,000	남성희(78) 300,000			
오경임(67) 300,000	오영란(67) 300,000	홍인화(80) 300,000			
한수미(67) 300,000	최옥주(67) 300,000	사회학과			
송혜영(69) 300,000	이숙경(68) 300,000	김덕신(66) 300,000			
정성희(69) 300,000	고화련(69) 300,000	유혜향(66) 300,000			
김영옥(70) 300,000	이금숙(69) 300,000	이수인(67) 300,000			
박지화(70) 300,000	김장영(71) 300,000	민순기(70) 300,000			
성혜옥(70) 300,000	추혜경(71) 300,000	김자혜(74) 300,000			
양연수(70) 300,000	김용애(72) 300,000	문재경(77) 300,000			
이경숙(70) 300,000	차성은(72) 300,000	박순원(71) 300,000			
최선열(70) 300,000	유동신(74) 300,000	서동선(77) 300,000			
방희정(72) 300,000	임병희(74) 300,000	김은미(81) 300,000			
신혜수(72) 300,000	이은주(82) 300,000	최신애(81) 300,000			
이승신(72) 300,000	최상민(다경)(03) 500,000	김정희(82) 300,000			
장 선(72) 300,000	기독교학과	이정화(85) 300,000			
권혜옥(75) 300,000	김 형(65) 300,000	김우진(08) 500,000			
김희자(76) 300,000	이정윤(74) 300,000	김현주 300,000			
유의순(76) 300,000	김미순(75) 300,000	사회복지학과			
이정숙(77) 300,000	최수현(92) 500,000	오명자(65) 300,000			
김남민(78) 300,000	윤예란(22) 500,000	최재명(66) 300,000			
김춘희(78) 300,000	사학과	김일숙(67) 300,000			
이명실(78) 300,000	김인숙(61) 300,000	문선화(68) 300,000			
홍성미(78) 300,000	한희경(65) 300,000	한인영(72) 600,000			
문영희(79) 300,000	임계순(67) 600,000	이정자(74) 300,000			
안미영(79) 300,000	오영옥(68) 300,000	이화수(77) 300,000			
이해남(79) 300,000	오옥환(68) 300,000	조영희(77) 300,000			
김종우(80) 300,000	임지향(68) 300,000	박영애(79) 300,000			
김동숙(81) 300,000	전진순(68) 300,000	김정진(80) 300,000			
신인화(81) 300,000	김경순(70) 300,000	김선영(92) 500,000			
임순희(82) 300,000	윤현숙(71) 300,000	정유선(02) 500,000			
김주희(92) 500,000	유제옥(74) 300,000	심리학과			
명선영(92) 500,000	오승연(76) 300,000	이은실(60) 1,300,000			
김동연(93) 500,000	주혜련(77) 300,000	오봉립(61) 300,000			
이승은(94) 500,000	박은화(80) 300,000	임혜영(64) 300,000			
박미경(98) 500,000	정혜중(91) 500,000	홍기명(68) 300,000			
박지희(07) 500,000	박기옥 300,000	남영자(71) 300,000			
송세일(09) 500,000	불 명 300,000	신현숙(71) 300,000			
김민경(16) 500,000	송혜숙(73) 300,000	공과대학			

허명화(70) 300,000	이혜완(69) 300,000	이현심(83) 300,000	홍경희(81) 300,000	김옥진(65) 300,000	강찬향(84) 300,000
이경신(72) 300,000	안경숙(78) 300,000	장순복(83) 300,000	양미희(82) 300,000	김화자(65) 300,000	박 경(84) 300,000
이명경(77) 500,000	강혜숙(80) 300,000	한선옥(87) 500,000	임선영(82) 300,000	박진희(65) 300,000	박병희(84) 300,000
김경주(80) 300,000	박수경(80) 300,000	국어교육과	김태경(84) 300,000	서인도(65) 300,000	박수영(84) 300,000
김서명(89) 500,000	김선자(82) 300,000	김예원(13) 500,000	최혜영(85) 300,000	송연자(65) 300,000	김영은(85) 300,000
김민정(90) 500,000	안인성(82) 300,000	법대·법전원	김예진(93) 500,000	유희열(65) 300,000	김성은(86) 500,000
정가희(19) 500,000	이지현(91) 500,000	법학과	박혜영 500,000	조수연(65) 300,000	김은미(86) 500,000
	이미진(07) 500,000			황영자(65) 300,000	김현주(86) 500,000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이미대안(55) 300,000	간호대학	이정자(66) 300,000	김승희(88) 500,000
교육학과	이선희(61) 300,000	김정자(56) 300,000	간호학과	김보혜(67) 300,000	최영옥(88) 500,000
호재숙(49입) 300,000	강봉기(63) 300,000	허남희(59) 300,000	김계숙(70) 300,000	박성자(67) 300,000	이윤정(92) 500,000
정일례(50) 300,000	민태희(70) 300,000	차명희(66) 500,000	이남희(70) 300,000	안규형(67) 300,000	김희진(02) 500,000
사지숙(55) 300,000	서정희(70) 300,000	천경희(66) 300,000	송희순(73) 300,000	이중자(67) 300,000	유별내(02) 500,000
김은산(59) 300,000	구경혜(71) 1,000,000	전효숙(73) 300,000	박혜주(75) 300,000	장순자(67) 300,000	권한비(21) 500,000
한임순(59) 300,000	김명희A(71) 300,000	박은정(74) 300,000	유명희(75) 300,000	한순희(67) 300,000	우혜인(22) 500,000
오춘란(61) 300,000	김영주(71) 300,000	신순자(74) 300,000	하영수(75) 300,000	박 순(68) 300,000	제약학과
구순희(65) 300,000	김옥영(71) 300,000	김남애(80) 300,000	윤숙경(76) 300,000	원문자(68) 300,000	김미자(74) 300,000
김신지(68) 300,000	노현숙(71) 300,000	권성희(86) 500,000	윤정숙(77) 300,000	강영식(69) 300,000	서성애(75) 300,000
박영자(68) 300,000	양태주(71) 300,000	진은희(88) 300,000	임경희(80) 300,000	김덕길(69) 300,000	이숙희(75) 300,000
장예순(68) 300,000	유경실(71) 300,000	양옥희(90) 500,000	이청란(81) 300,000	김옥수(69) 300,000	이영숙(76) 300,000
이인숙(69) 300,000	이선희(71) 300,000	정영심(00) 500,000	변은경(83) 300,000	박성숙(69) 300,000	김선주(79) 300,000
유승희(70) 300,000	이윤숙(71) 300,000	백혜랑(01) 500,000	유미경(01) 500,000	이병림(69) 300,000	서영순(80) 300,000
이상희(72) 300,000	장세화(71) 300,000	안신정(06) 500,000	송사라(20) 500,000	정인숙(69) 300,000	한명희(83) 300,000
채문숙(74) 300,000	전혜영(71) 300,000	윤수영(07) 500,000		하영숙(69) 300,000	김은경(85) 300,000
노경희(77) 300,000	정봉식(71) 300,000	임민정(10) 500,000		문경재(70) 300,000	배은숙(85) 300,000
박영숙(81) 300,000	조태순(71) 300,000			변진희(70) 300,000	유선희(85) 500,000
정대련(82) 300,000	최 환(71) 300,000	경영대학		정순자(70) 300,000	이종민(85) 300,000
이정표(85) 300,000	최필녀(71) 300,000	경영학과		이항구(50) 300,000	이정경(88) 500,000
유아교육과	이선희(72) 300,000	임혜옥(74) 300,000		배복희(55) 300,000	송경령(89) 500,000
정명자(68) 300,000	이인숙(72) 300,000	김영선(78) 300,000		이주재(71) 300,000	안은선(89) 500,000
김영주(71) 300,000	최영순(72) 300,000	고혜경(80) 300,000		조성제(71) 300,000	문미란(93) 500,000
임형란(71) 300,000	성경옥(74) 300,000	홍순경(80) 300,000		이정란(57) 300,000	고명순(72) 300,000
문경숙(74) 300,000	이연희(75) 300,000	강명화(83) 300,000		문예자(58) 300,000	박정아(72) 300,000
오승희(75) 300,000	성효현(78) 300,000	채경령(83) 500,000		배숙재(58) 300,000	전수경(94) 500,000
송은미(85) 300,000	송선향(78) 300,000	주 현(91) 500,000		조선복(72) 300,000	서은영(99) 500,000
김규정(06) 300,000	손혜경(80) 500,000	나민경(98) 500,000		임정순(73) 300,000	최자영(08) 500,000
초등교육과	최승원(80) 300,000	하혜실(05) 500,000		정현숙(75) 300,000	김유현(75) 300,000
고정자(64) 300,000	부은령(81) 300,000	조유진(09) 500,000		유남희(75) 300,000	생활환경대학
김경자(68) 362,258	이한순(83) 300,000	국제사무학과		이복희(75) 300,000	기정학과
장화숙(68) 300,000	서경애(84) 300,000	조계숙(73) 300,000		경순옥(59) 300,000	
김경순(69) 300,000	김방희(85) 500,000	이광희(74) 300,000		송태좌(60) 300,000	
정덕주(70) 300,000	손희정(88) 500,000	김지혜(92) 500,000		박정희(62) 300,000	
이재희(71) 300,000	과학교육과			박창순(62) 300,000	
김세향(74) 300,000	송옥자(66) 300,000	의과대학		정준자(70) 300,000	
조진영(77) 300,000	곽혜경(68) 300,000	의학과		정용희(75) 300,000	
교육공학과	주영미(72) 300,000	송애완(59) 300,000		최성립(76) 300,000	
김준희(67) 300,000	한영수(72) 300,000	박보훈(60) 300,000		김현수(79) 300,000	
전진호(71) 500,000	박현경(81) 300,000	이용옥(60) 300,000		민명수(79) 500,000	
김영수(73) 300,000	박종서(82) 300,000	남소자(66) 300,000		이미애(79) 300,000	
김혜련(73) 300,000	강용란(83) 300,000	방희연(68) 300,000		이혜정(79) 300,000	
이구인(73) 300,000	신동하(83) 300,000	유신애(69) 300,000		김정훈(62) 300,000	
노정숙(74) 300,000	손지현(89) 500,000	주문희(70) 300,000		김준자(63) 300,000	
신경인(75) 300,000	김재령(92) 500,000	우명숙(71) 300,000		이순자(63) 300,000	
정연정(91) 500,000	조소현(95) 500,000	이경희(71) 300,000		최창환(63) 300,000	
특수교육과	신명은(05) 500,000	이영주(72) 300,000		김화연(82) 300,000	
한기정(75) 300,000	수학교육과	방은숙(74) 300,000		구신자(64) 300,000	
한은주(79) 300,000	심홍임(76) 300,000	이덕용(75) 300,000		이선희(82) 300,000	
김태연(89) 300,000	신경희(77) 300,000	이혜영(77) 300,000		이봉근(72) 300,000	
채명숙(92) 500,000	조은숙(82) 300,000	오혜숙(78) 300,000		장미숙(82) 300,000	
영어교육과	윤혜영(82) 300,000	이진숙(78) 300,000		조혜숙(82) 300,000	
계기원(69) 300,000	윤희숙(82) 300,000	심 현(80) 300,000		김진원(75) 300,000	
김영숙(69) 300,000	이수영(82) 300,000	백애란(81) 300,000		지영서(80) 300,000	
김향련(69) 300,000	김혜영(83) 300,000	이경숙(81) 300,000		임주희(93) 300,000	
					의류디자인과

변기혜(81)	300,000	강종은(74)	300,000	김옥례(71)	300,000	박선애(01)	500,000	신학대학원	최수정 300,000
차영란(82)	300,000	김광옥(75)	300,000	함추희(72)	300,000	천미영(14)	500,000	최유미 300,000	
식품영양학과		이명복(75)	300,000	이선숙(74)	300,000	교육대학원		불 명 500,000	
정애영(64)	300,000	황은주(75)	349,534	김숙자(82)	300,000	양수화(74)	300,000	불 명 300,000	
이선옥(69)	300,000	최진자(80)	300,000	유형심(90)	500,000			불 명 300,000	
김정연(70)	300,000	전보신(81)	300,000	국제학부		사회복지대학원		윤혜원 300,000	
김태연(70)	300,000	조미숙(81)	300,000			유지선(18)	500,000	이수자 300,000	
우정애(70)	300,000	조미숙(83)	300,000	국제학과				이영경 300,000	
박진자(71)	300,000	융합보건학과				정책과학대학원		불 명 300,000	
김남주(72)	300,000	장점숙(69)	300,000			최수안(06)	500,000	이혜재 300,000	
김금희(73)	300,000	이수인(70)	300,000	대학원				전혜성(08)	500,000
									장수진 500,000
									조선영 3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3.1~2023.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이종희(70)	이정혜(81)	유애저(65)	이임수(61)	신금선(50)	심인자(74)	윤수미(91)
국어국문학과	김수연(71)	강숙희(90)	조혜진(91)	장 상(62)	백신숙(54)	이은주(94)	윤종옥(92)
허미자(57)	김혜정(72)	사학과	김영해(95)	남선일(64)	장영숙(71)	섬유예술과	전예진(23)
임인진(58)	이명숙(74)	이은숙(60)	김도은(23)	김원영(73)	피아노과	오순영(64)	
김봉옥(59)	정덕애(74)	정민자(61)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이숙자(73)	권혜령(76)	김삼선(68)	사범대학
양중자(60)	백혜련(75)	조성신(61)	조애진(66)	이인정(75)	양경희(80)	김경희(69)	교육학과
배옥자(61)	조성실(76)	남상훈(62)	조정자(67)	박복자(76)	이혜영(83)	손경숙(80)	백인숙(50)
권은영(62)	김미량(77)	김재향(67)	김미령(69)	통계학과	김태영(88)	한애령(81)	김애자(56)
김길옥(62)	이옥배(79)	서정임(68)	임진희(69)	박수빈(23)	윤인영(05)	전영선(88)	조병주(56)
전병숙(64)	박영란(80)	임계순(72)	김인자(73)	물리학과	김미진(93)	권유봉(58)	
윤수영(65)	이승희(80)	임인선(72)	송지은(01)	김경자(68)	이혜원(81)	김연재(94)	정재숙(58)
정준선(66)	고혜선(82)	이재순(75)	사회학과	김순옥(74)	이지연(90)	이현조(23)	김은산(59)
연부자(68)	박경애(83)	조영분(80)	최용소(65)	이미경(86)	성악과	생활미술과	김준심(59)
오원자(68)	엄현진(93)	최유리(84)	최진선(70)	류승희(06)	왕아자(67)	홍영옥(59)	심재완(59)
진승희(68)	박은주(94)	조주은(90)	이정화(85)	화학과	정선주(68)	김은영(64)	이양순(59)
이경희(71)	장예술(23)		이유림(94)	김명숙(57)	조현주(68)	이민정(67)	권혜숙(61)
정운현(71)	불어불문학과	사회과학대학	김주희(04)	강영옥(60)	작곡과	김미자(70)	김애순(61)
임덕기(72)	권남규(64)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김정남(60)	박혜신(71)	서천식(61)	
한순미(75)	김송자(64)	윤혜자(61입)	오순희(60)	박영현(60)	강순미(71)	이주형(80)	백영자(63)
백영자(76)	윤용범(64)	김영숙(70)	최태순(62)	양영자(65)	김성옥(74)	장식미술과	이정옥(63)
임혜민(23)	조행자(64)	김영희(70)	손경자(64)	양하자(65)	손유경(92)	신승원(87)	정종순(63)
중어중문학과	이초혜(66)	서염미(70)	이청자(67)	이인희(70)	김다솜(10)	신영선(88)	윤순희(65)
윤이지(23)	엄선경(67)	서정희(70)	최수자(67)	최희성(74)	종교음악과	도예과	박정수(68)
영어영문학과	이경혜(67)	이양준(70)	고순자(69)	박세주(75)	김명수(75)	안희정(85)	이재옥(68)
권경숙(49)	이한순(67)	이연표(70)	장성순(72)	박명옥(81)	한국음악과	남연숙(86)	김임순(70)
류수인(50)	한수옥(69)	조백련(70)	김혜순(84)	허신희(97)	여동은(02)		박국자(72)
백형진(55)	최미자(70)	조복선(70)	이혜연(90)	홍영은(22)	김차윤(23)	체육대학	서성필(75)
곽경수(57)	정광자(73)	하정희(70)	김정민(23)	권민지(23)	체육학과	곽상경(02)	
김경숙(58)	이은주(77)	신경희(71)	심리학과	생명과학과	조형예술대학	이영옥(62)	유아교육과
고학신(59)	임선희(85)	서미영(72)	황혜자(57)	최영희(60)	동양학과	김혜자(66)	유근희(61)
유초선(60)	채은미(85)	손인숙(72)	기오성(61)	심순식(65)	송향선(70)	최춘자(66)	최영란(61)
김옥선(61)	채 린(86)	양혜련(72)	김순옥(61)	전청자(65)	곽유정(86)	전성자(67)	정주자(62)
김정매(63)	독어독문학과	최종혜(76)	김숙희(84)	박정희(87)	이승은(89)	이정자(68)	김영희(68)
박봉숙(63)	이영자(68)	강제선(79)	한정운(84)		주정민(93)	김은희(72)	전희정(68)
엄윤성(63)	최영민(71)	유정민(92)	이동길(89)	공과대학	문정민(05)	이미나(81)	박혜경(72)
유명자(63)	김정미(92)	정정의(92)	한상희(22)	컴퓨터공학과	문정민(05)	최정진(82)	정봄마지(06)
김춘미(65)	한승연(92)	서석영(94)	경제학과	신다윤(23)	서양화과	초등교육과	
정해원(65)	기독교학과	김경희(00)	문종순(94)	건축학과	곽 연(67)	김동연(84)	
정혜주(65)	신낙균(63)	노정운(23)	문세령(23)	김예원(20)	이서희(68)	김세현(85)	김팡자(65)
김봉희(66)	김영화(65)	행정학과	소비자학과	김예원(20)	합기옥(79)	김유련(97)	이행자(65)
이영숙(68)	이정자(66)	정희정(92)	유다운(23)	희먼기계바이오공학부	박형주(91)	무용과	이인숙(70)
이유경(68)	장수자(66)	최원선(96)	임지우(23)	임지우(23)	양경옥	이예순(68)	이지수(71)
한선규(69)	김미희(86)	송은주(12)	자연과학대학	음악대학	조소과	김정수(70)	김순호(72)
오경심(70)	철학과	문화정보학과	수학과	기악과	박덕선(65)	윤덕경(76)	신은옥(74)
					김정숙(71)	손경순(77)	조을순(75)

홍진주(10)	이승주(73)	이은춘(58)	김혜경(67)	박정자(65)	570,000원	1,297,110원	200,000원
이영주	이문숙(75)	이혜재(58)	윤경숙(67)	오매성(66)	김경인(동양 74)	독일·오스트리아	일본
교육공학과	조근배(77)	박정애(59)	이평숙(67)	조규화(66)	홍선란(교육 74)	353,412원	660,000원
이숙애(72)	남윤희(87)	신가균(59)	정순혜(67)	박순자(67)	최정숙(영교 74)	라스베이거스	최영숙(체육 65)
이정옥(81)	최정숙(90)	윤혜숙(59)	정영주(67)	장영희(67)	유종희(사학 75)	607,420원	곽소춘(사학 65)
이소영(91)		진경순(59)	지화자(67)	홍양자(67)	고명선(영문 76)	엘버른	정정자(커미부 65)
신혜원(23)	경영대학	고순환(60)	최순자(67)	김혜영(68)	박금희(물리 76)	100,480원	정태영(생미 69)
특수교육과	경영학과	김보근(60)	김경자(68)	임혜숙(68)	최영자(사회 77)	베이징	고정희(장미 74)
김은경(87)	정혜선(89)	민경남(60)	오세종(68)	가정관리학과	김명석(작곡 79)	1,000,000원	신주리(장미 84)
영어교육과	이수경(13)	유선경(60)	장인순(68)	권광자(71)	황경숙(체육 79)	보스턴	송미연(커미부 86)
김경숙(69)	이한빛(22)	윤계임(60)	전두선(68)	서태선(75)	나연희(경영 79)	648,555원	김덕희(도예 92)
김영숙(69)	고지현(23)	윤계화(60)	조외희(68)	의류직물학과	서세석(영문 81)	북가주	나정윤(동양 92)
노선자(69)	정원주(23)	윤정섭(60)	최원자(68)	유혜자(77)	유숙영(법학 85)	648,555원	배호주(동양 93)
최종숙(72)	국제사무학과	이경재(60)	백숙희(69)	박희숙(94)	율지연(간호 85)	브라질	이목미(유교 93)
김희경(77)	임은식(81)	이주화(60)	신정희(69)	식품영양학과	고선영(불어교육 86)	500,000원	구은경(서양 93)
신경희(86)		이정환(60)	오정순(69)	구소원(69)	최정선(커미부 87)	세인트루이스	손주화(과교 95)
최영옥(87)	의과대학	장현숙(60)	전경숙(69)	편희숙(69)	신경화(조소 88)	363,190원	성민영(수학 95)
김은정(93)	의학과	최정희(60)	권정화(70)	이영숙(70)	홍기은(교공 88)	최경선(영문 61)	김운천(평교원 96)
이현정(94)	박명숙(53)	최혜경(60)	신옥희(70)	전정숙(71)	김수진(경영 91)	김평자(영문 63)	노윤영(생명 99)
사회과교육과	김순희(59)	허정옥(60)	정현숙(70)	이경애(82)	이유진(섬에 95)	이수자(가정 63)	김은영(커미부 01)
김경옥(57)	우복희(63)	홍준자(60)	박숙현(71)	옥경희(94)	전주	최길자(화학 65)	김 일(한음 02)
박정복(57)	배민자(66)	황영숙(60)	이태윤(71)	최수미(94)	1,140,000원	정선주(성악 68)	고나리(커미부 05)
박희선(57)	지현숙(70)	고경희(61)	백창화(72)	임지민(23)	이순례(수학 59)	이애희(간호 69)	김보경(디자인 08)
조문자(조정자)(64)	김혜진(71)	고화영(61)	손순주(72)	융합보건학과	김영원(기악 61)	김재숙(의학 72)	이명은(생명 23)
양인숙(66)	우경숙(72)	김옥녀(61)	신영숙(73)	신정례(67)	국혜원(사학 62)	남진우(간호 73)	문춘자(알프스 09)
최영자(66)	유경화(74)	은영기(61)	우진향(75)	이주순(73)	조덕이(생명 64)	양혜자(교육 74)	자카르타
성봉기(68)	최금자(74)	이광구(61)	박민희(77)	조남옥(74)	이주자(사교 67)	최혜영(생미 86)	259,800원
윤여숙(69)	배순희(75)	이종희(61)	김현미(78)	오명신(78)	장 속(교공 69)	시드니	클리블랜드
김숙자(70)	이경자(75)	전인순(61)	나순균(81)	임찬희(78)	안명옥(심리 70)	403,284원	300,000원
박영주(70)	조종남(75)	정예경(61)	최경석(81)	전혜선(82)	박숙희(교공 70)	시애틀	토론토
이선희(73)	이경립(76)	정은자(61)	허정순(85)	정숙경(88)	이진숙(의적 70)	389,133원	580,696원
안정숙(92)	장애숙(76)	강해식(62)	정병화(88)	이 빙(23)	박경혜(영교 71)	싱가포르	필라델피아
과학교육과	이용주(77)	반묘령(62)	진성미(88)	소비자인간발달학	기영석(국제사무 73)	1,500,000원	389,133원
김종은(60)	최금숙(79)	배현진(62)	김영순(92)	강해진(05)	이현실(심리 73)	애틀랜타	호치민
이순자(67)	김문자(80)	송미래(62)	박영희(94)	손숙희(작곡 73)	1,297,110원	1,000,000원	
한옥희(67)	최신영(80)	조수남(62)	이은희(15)	대학원	심창교(물리 75)	홍콩	
한태화(68)	홍기숙(80)	김국자(63)	최예령(23)	남기신(83)	오경안(법학 75)	750,000원	4,467,420원
안순란(74)	정혜경(92)	송정구(63)	오영자	강소진(01)	정혜숙(영문 77)	손선해(영문 66)	(*이하 홍콩달러 HKD)
김인원(75)		신경자(63)	제약학과	남현선(07)	유순금(법학 77)	정미령(교육 66)	방혜자(교육 66) 10,000
조윤희(77)	간호대학	신순자(63)	고순현(71)	김호정(13)	이은경(화학 79)	강순열(가관 77)	이명희(무용 68) 200
김영숙(83)	간호학과	안복자(63)	장우현(74)		홍순원(과교 79)	김인성(영문 80)	최명성(교공 76) 3,000
조경희(86)	남상옥(62)	전해식(63)	백영희(75)	정책과학대학원	이정숙(유교 81)	음은경(조소 82)	정도경(사복 81) 3,000
송현주(87)	오나미혜(64)	정창섭(63)	오윤순(75)	서효은(08)	강명옥(영문 82)	김명희(특교 90)	최성희(정의 87) 500
박미경(88)	김미경(66)	차영화(63)	최성화(76)		성현수(영문 82)	표정아(정의 90)	한유미(유보 90) 3,000
박균하(94)	오영숙(70)	한애자(63)	김영미(79)	신학대학원	이옥현(파이노 82)	정지은(한음 94)	도주원(생미 92) 800
수학교육과	권명자(71)	한용봉(63)	이종민(85)	박경천(04)	문아경(약학 82)	김수정(기독 95)	오은정(법학 92) 2,000
윤연상(62)	김기숙(71)	허옥자(63)	윤부금(86)	장계영(20)	황미숙(무용 84)	박은경(유교 95)	이계영(종음 01) 1,000
문봉선(76)	김택숙(71)	김기방(64)	조은진(94)		박영자(국문 85)	정준화(사복 95)	기정화(영문 04) 1,000
백수지(23)	이광자(71)	김송윤(64)		학과·연도 미상	최희윤(불문 85)	남경화(국문 98)	노정아(경영 04) 500
	박미주(73)	나진미(64)	생활환경대학	권지원	김영란(서양 85)	양지경(사회과교육 00)	진보라(정의 08) 2,000
법대·법전원	조문옥(73)	백정자(64)	가정학과	김소진	정순임(식영 85)	김보혜(경제 02)	
법학과	최혜은(98)	오성지(64)	김영재(50)	박지현	정향숙(사복 86)	배세윤(경영 02)	
이홍배(61)		이신자(64)	박종오(58)	이수민	유희연(영교 86)	신지원(사회과교육 02)	
황의재(61)	약학대학	이정혜(64)	손경희(58)	이현숙	진용희(사교 87)	홍시내(커미부 02)	
민명자(65)	약학과	임선자(64)	김선영(59)	이효숙	김경주(행정 88)	최효원(정의 04)	
유희숙(65)	최혜정(49)	정태연(64)	김혜자(60)	전윤식	김희진(특교 89)	안민영(소비자 09)	
이영자(65)	전예실(51)	황대성(64)	이공희(60)	주 영	김은영(사학 93)	이재영(환경 09)	
홍경자(65)	노난수(57)	권영필(65)	양여순(61)		김수진(법학 94)	정소단(디자인 09)	
양정자(66)	박덕희(57)	서화자(65)	김룡자(64)	기타 이름 미상	강진아(중문 95)	김도형(국문 10)	
안정희(67)	우종순(57)	김명자(66)	예경혜(64)	(16명)	이윤정(파이노 99)	김세미(국제 11)	
윤혜숙(70)	이정경(57)	이기순(66)	이영예(64)			홍유림(불문 13)	
신중희(72)	홍정옥(57)	김수옥(67)	조정자(64)	국내 지회	해외 지회	최혜인(경영 16)	
이중분(72)	유문자(58)	김진희(67)	박부자(65)	순천	남가주	이탈리아	

국내 최초 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4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키카오톡 전용채널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신한은행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신한 연금라운지】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 일간: 11월 22일 오후 (031-812-3655, 주말/여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노만: 11월 27일 오후 (02-6224-5499, 노만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안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안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개인형IRP의 실제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순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순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시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의무가 있으며, 투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충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증도 인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의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양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수주 및 휴무일 제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일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